Cambodia Korean Mission
30
1993-2023

주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

한인선교

주년

주제 :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날아오를 30년"

-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29일(수)
- **장소** :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채플 대강당)

선교대회 차례

FORUM 01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 기념 감사찬양제 4
감사예배 /1부 개회예배 5
감사예배 /2부 선교대회 8
근속자 명단 9

FORUM 02

포럼1/2/3 소개 10
패널 토의 소개 11
포럼1 한인 선교사와 캄보디아 교회의 협력을 위한 소고 / 한글 12
포럼1 / 영문 23
포럼2 30년 동안의 캄보디아 교회 자립을 위한 한인선교의 공과 / 한글 34
포럼2 / 영문 43
포럼 3 캄보디아 복음화율 1%대 원인과 돌파 전략 / 한글 52
포럼3 / 영문 77

FORUM 03

한인선교 30주년 포럼집 소개 98

선교대회 일정

28일(화) 첫째날

구분	시간	내용
오전	9:00	주캄한인선교사회 3월 정기 월례회
오후	12:00	* 중식
	1:30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 기념 감사찬양제
		* 티타임
	3:40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 감사예배
	5:30	* 석식

29일(수) 둘째날

구분	시간	내용
오전	9:00	선교 포럼1
	10:30	* 티타임
	10:45	선교 포럼2
오후	12:15	* 중식
	1:30	선교 포럼3
	3:20	* 티타임
	3:40	선교 패널토의 및 사명선언문 결의
	5:30	석식

축 사

할렐루야!

주 예수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3월 28일~29일에 우리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모든 가족들을 모시고 참으로 귀한 행사를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지려 합니다.

그동안 선교의 불모지인 캄보디아 킬링필드 죽음의 땅에 하나님께서 30년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셨고 30년이 흘러 캄보디아 곳곳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리빙필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임원분들과 찬조와 기도로 도와주신 모든 선배、동료선교사님들께 어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30주년이 앞으로의 30주년을 밝히는 귀한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장 **오창수 선교사**

환영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30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선교 초기의 초석을 놓으셨던 선배 선교사님들이나, 그 뒤를 이어 귀한 사역들을 이어가는 후배 동역 선교사님들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기념 감사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역사라고 부릅니다. 또 다르게는 전통이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 선교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헌신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모든 캄보디아 선교사님들과 후원교회, 그리고 기도로 협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캄보디아 선교 30주년 실행위원장 **김태권 선교사**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 기념 감사찬양제

진행 : 노엘 팀미니스트리 (구상호 선교사)

1. 연주 / 클라리넷	여호와 우리 주여 /**장클라**
2. 연주 / 클라리넷, 바이올린	왕이신 나의 하나님+예배 합니다 /**장클라, 이가람**
3. 나눔과 찬양	1. 찬양하기 전 나눔 2. 성령이 오셨네 (회중과 함께) 3. 내 진정 사모하는 (회중과 함께) /**지경미**
4. 간증 / 연주	1. 간증과 감사인사 2. 연주 /**이나영**
5. 간증 / 노래 솔로	1. MK 자기 소개 2. 어머니의 기도 /**류화평**
6. 노래 듀엣	은혜 /**류화평, 쓰러이 띠**
7. 간증 / 노래 솔로	1 간증 2. 마라나타 /**쓰러이 띠**
8. 연주 / 바이올린	1. 하나님의 열심 2.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가람**
9. 함께 찬양	1. 30주년 감사 찬양곡 소개 2. 주의 이름을 위하여 /**캄장신과 찬양팀**
10. 함께 찬양	거룩 거룩 거룩 /**캄장신과 찬양팀**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 감사예배

(pm.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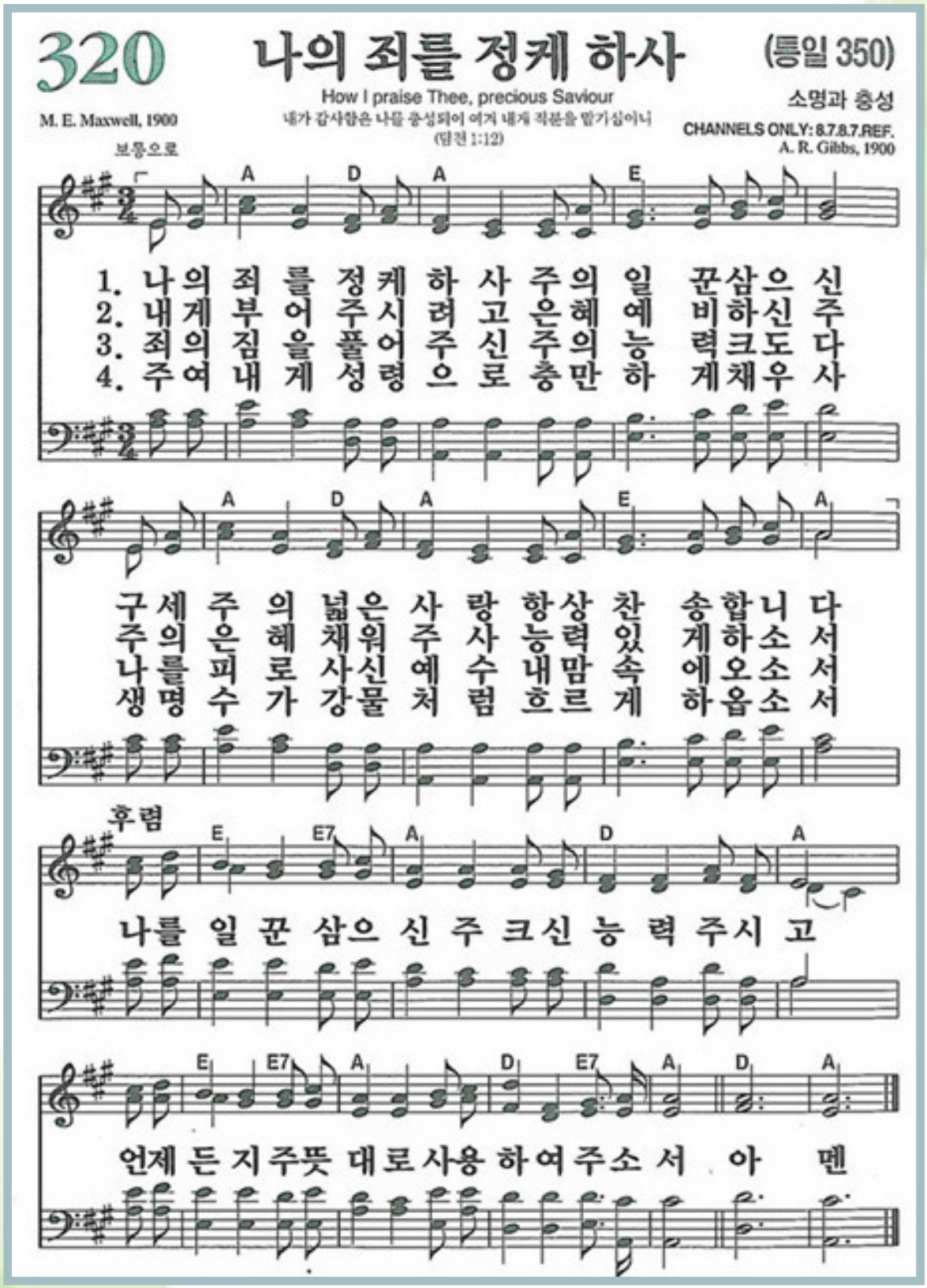
1부 개회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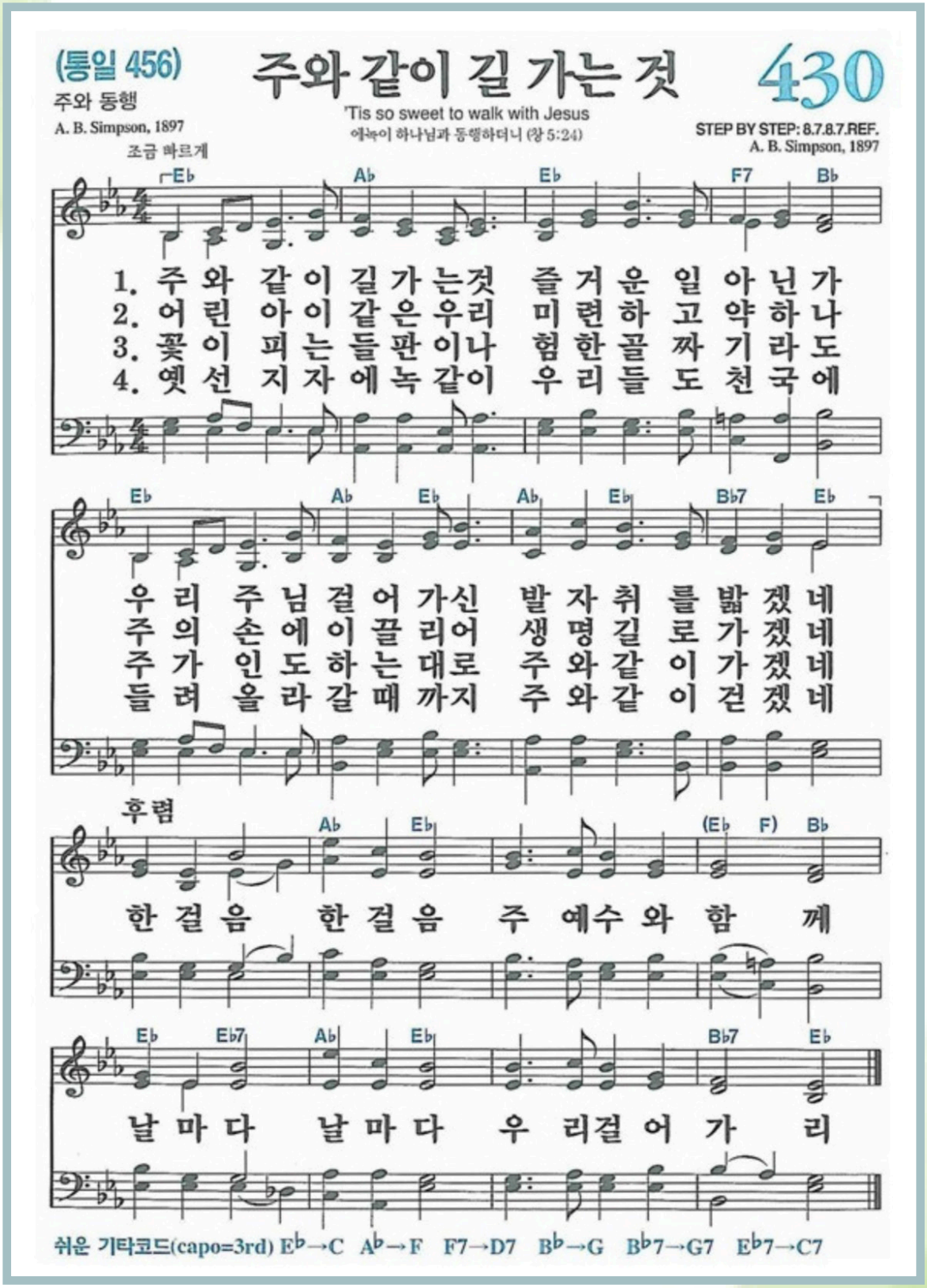
사회 : 김한주 선교사

묵도 ..... 다같이
개회기도 ..... 사회자
찬송 ..... 찬 320장 (나의죄를 정케 하사) ..... 다같이
기도 ..... 노진태 선교사
성경봉독 ..... 대하 1:7-12..... 고영립 선교사 (시엠립 지부장)
특별찬양 ..... CPTI SINGERS (캄장신 교회음악과)
설교 .....오직 주님의 은혜라.....서병도 선교사 (한인선교사회 초대회장)
찬송 .....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광고..... 김동구 선교사 (실행총무)
축도 .....이증재 선교사 (증경회장)

(역대하 1장)

7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320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통일 350)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ur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전 1:12)
소명과 충성
M. E. Maxwell, 1900
CHANNELS ONLY: 8.7.8.7.REF.
A. R. Gibbs, 1900
보통으로
1. 나의 죄 를 정케 하 사 주의 일 꾼삼으 신
2. 내게 부 어 주시 려 고 은혜 예 비하신 주
3. 죄의 짐 을 풀어 주 신 주의 능 력크도 다
4. 주여 내 게 성령 으 로 충만 하 게채우 사
구세 주 의 넓은 사 랑 항상 찬 송합니 다
주의 은 혜 채워 주 사 능력 있 게하소 서
나를 피 로 사신 예 수 내맘 속 에오소 서
생명 수 가 강물 처 럼 흐르 게 하옵소 서
후렴
나를 일 꾼 삼으 신 주 크신 능 력 주시 고
언제 든 지 주뜻 대로 사용 하여 주소 서 아 멘


(통일 456)
주와 동행
A. B. Simpson, 1897
조금 빠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 5:24)
430
STEP BY STEP: 8.7.8.7.REF.
A. B. Simpson, 1897
1. 주 와 같 이 길 가 는 것 즐 거 운 일 아 닌 가
2. 어 린 아 이 같 은 우 리 미 련 하 고 약 하 나
3. 꽃 이 피 는 들 판 이 나 험 한 골 짜 기 라 도
4. 옛 선 지 자 에 녹 같 이 우 리 들 도 천 국 에
우 리 주 님 걸 어 가 신 발 자 취 를 밟 겠 네
주 의 손 에 이 끌 리 어 생 명 길 로 가 겠 네
주 가 인 도 하 는 대 로 주 와 같 이 가 겠 네
들 려 올 라 갈 때 까 지 주 와 같 이 걷 겠 네
후렴
한 걸 음 한 걸 음 주 예 수 와 함 께
날 마 다 날 마 다 우 리 걸 어 가 리
쉬운 기타코드(capo=3rd) E♭→C A♭→F F7→D7 B♭→G B♭7→G7 E♭7→C7

(2부) 선교대회

사회 : 김태권 선교사

환영사 ..... 오창수 선교사 (대회장)
대회 진행 보고 ..... 김태권 선교사 (실행위원장)
축사 ..... 정명규 선교사 (재캄 한인회장)
축사 ..... David Manfred (C&MA Field Director)
축사 ..... 박재신 목사 (현)GMS 이사장)
30년 근속패 및 근속장 수여 ..... 대회장
20년 근속장 수여 ..... 대회장
축가 ..... 류기룡 교수 (왕립예술대학교)
감사인사 ..... 송진섭 선교사
격려사 ..... Kong Mara (꽁 마라 목사/100주년 준비위원장)
권면 ..... 김재호 목사 (캄장신 총장)
마침기도 ..... 황 신 선교사

근속자 명단

30년 근속자

01 강창윤/지주옥 [30년 근속패]
02 송진섭/김경숙 [30년 근속패]

20년 이상 근속자

03 서병도/유현신
04 김한주/나귀주
05 황신/최중희
06 이성민/김창숙
07 김철환/공혜영
08 김정영
09 차연미
10 공은혜
11 김항철/홍정미
12 문찬식/김용숙
13 김혜련
14 박훈용/정은정
15 김윤근/이혜숙
16 윤옥
17 조학현/정승원
18 정순영
19 이성연/정정아
20 김병교/한경복
21 김창훈/정기순
22 오태근/이세금
23 김조동/임희무
24 김기대/류소현
25 정순태/고정숙
26 이철희
27 김정룡/성정숙
28 박도한/이광숙
29 노진태/전혜정
30 차빌립/고한나
31 고진석/김미경
32 박효준/양은모
33 최원찬/이윤옥
34 김가중/우영숙
35 김이수/홍영심
36 임만호/김용순
37 김대윤/박은정
38 김창영/박송이
39 구현서/백현옥
40 김복음/김치유
41 김태권/신태순
42 윤종철/현기연
43 이계광
44 한우수/정지연
45 정병대/홍순남
46 유남숙
47 김동구/이은숙
48 황기수/전신자
49 엄태근/이효숙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 둘째날 / 포럼

포럼 1 (9:00~10:30)

주제 : 한인 선교사와 캄보디아 교회의 협력을 위한 소고

강사 : 조학현 선교사

사회 : 이경곤 선교사

포럼 2 (10:45~12:15)

주제 : 30년 동안의 캄보디아 교회 자립을 위한 한인선교의 공과

강사 : 장완익 선교사

사회 : 박영주 선교사

포럼 3 (1:30~3:20)

주제 : 캄보디아 복음화율 1%대 원인과 돌파 전략

강사 : 김종식 선교사

사회 : 양순식 선교사

패널 토의

주제 : 서구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가 바라보는 캄보디아 한인선교

패널 : Ann Greve, David Manfred, Son Vuthy, Wyene Hester, Ma Ravuth, Kong Mara

사회 : 오석환 선교사

Ann Greve
The Pastor of International Christian Assembly

David Manfred
The Field Director of C&MA

Son Vuthy
The Principal of Phnom Penh Bible School

Wyene Hester
The Director of the Cambodia Church Planting Center.

Ma Ravuth
The Executive Director of EFC

Kong Mara
The Fomer Exeutive Director of
Centennial Gospel Legacy in Cambodia

포럼 1 (9:00~10:30)

주제 : 한인 선교사와 캄보디아 교회의 협력을 위한 소고

강사 : 조학현 선교사

사회 : 이경곤 선교사

한인 선교사와 캄보디아 교회의 협력을 위한 소고

조학현(OMF 캄보디아)

1. 들어가는 글

2023년은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아더 와 에스더 하몬드 (Arthur & Esther Hammond) 선교사 부부가 첫 발을 내 딛음으로 캄보디아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 된 것이다. 지난 100년동안 캄보디아가 역사의 많은 혼란과 변동이 있었던 것처럼 캄보디아 교회 또한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올 한 해가 캄보디아 교회의 개신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하지만 한인 선교사의 캄보디아 선교 30 주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는 해이다. 1993년 1월 강창윤. 지주옥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주재한 하는 장기 선교사로서 입국함으로 한인 선교사의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한인 선교사가 캄보디아 현지 교회와 그리고 비 한인 선교사들과의 협력이 시작 되었음을 말해준다.

선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원을 모으고 나눔으로 협력관계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라 고 한국일 교수는 협력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회의 지상 과업인 세계의 복음화가 단지 한 민족과 그 민족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가 전적으로 수행 한 적도 없었고 수행 할 수도 없다. [1]

필자에게 처음 주어진 포럼의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30주년 한인선교사와 현지목회자 그리고 서구 선교사와의 협력관계” 하지만 이 제목을 따라 글을 작성하기에는 제한된 지면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리하여 협력은 주로 캄보디아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며 부차적으로 비 한인 선교사들과 협력을 두고 글을 전개 하였다. [2]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캄보디아 교회들과 그리고 비 한인 선교사들과 협력을 잘해 왔는 가를 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협력을 잘하는 선교사들 이라기 보다는 협력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협력의 파트너인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이나 비 한인인 선교사들로부터 종종 들어왔다. 글은 첫째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캄보디아 교회와 협력을 해왔는가 둘째로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협력을 방해 하고 있는가를 돌아 보며 셋째는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로 글을 마무리한다.

2. 한인 선교 3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협력의 형태들

1994년 첫 한인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입국할 때 한국교회는 약 2700명(92년과 94년 의 중간에)을 해외 선교사로 내 보냈는데 그 중에 캄보디아 선교지로는 단 두 가정 4명 에 불과 하였다. 그런데 2022년 같은 단체인 KRIM이 발표한 한인 선교사(이 통계에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포함한 한국 밖의 교회로부터 파송 받은 숫자는 제외) 숫자는 22,204명이었다. 그 중에 캄보디아로 파송 되어진 선교사 숫자는 844명으로 선교지 대상 국가 중 6번째로 한인 선교사가 숫자가 많은 나라가 캄보디아 인 것이다. [3] 1993년 캄보디아 인구가 1천 20만명 되었다. 이는 한인 선교사 한 명당 2백5십만명 꼴인데 2022년 캄보디아 인구가 1천 6백 7십만명이라고 보고 된 것에 따르면 한인 선교사 숫자를 천명으로 계산해도 캄보디아 인구 16,700명당 한 명의 한인 선교사가 사역하는 형태이다. 스티브 하이드에 따르면 1993년 캄보디아 교회가 150개 정도였다고 한다. MK2021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3,194개의 교회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 통계를 참고 하자면 캄보디아 교회의 숫자 증가율 보다 한인 선교사 수의 증가율은 비교가 안

1. 한국일.(2004).선교 120년과 한국선교의 미래.선교와 신학,14(),109-142.

2. 서구 선교사들이 여전히 선교계의 다수이지만 이미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 서구로 이동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비 서구 선교사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기에 서구 선교사라는 다소 불공정한 용어 보다는 비 한인 선교사로 지칭하는 것 이 더 합리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3. 2022년 9월 까지 등록된 한인 선교사의 넘버가 450번에 이른 것으로 보면 캄보디아에서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 숫자는 KRIM에서 발표한 숫자를 훨씬 상회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될 정도로 훨씬 크다. 캄보디아 기독교 선교에서 통계적으로도 한인 선교사의 비중이 얼마나 큰 가인가를 절실히 드러내준다. 협력을 하지 않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와 역할을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와의 협력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형태를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 태국의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해 온 김정웅 선교사는 한인 선교사와 현지교회와의 협력하는 방법을 10가지로 분류 하였는데 그 분류를 참조 하기로 한다.

“1)선교사가 교회들을 개척하여 교단을 만드는 방법 2)현지 교단과 협력 사역을 그리고 자체 교단 형성을 이중으로 하는 형태 3) 현지 교회와 선교부가 동등한 가운데 협력하는 방법 4) 현지 교회에 흡수되어 그들의 사역 일부를 돕는 방법 5) 현지교회와 협력하여 어떤 사역의 일부를 책임지는 방법 6) 현지의 국제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방법 7) 구제와 봉사 사역을 통해 현지교회를 간접적으로 돕는 방법 8)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협력하는 유형 9) 선교사가 관계된 현지인들과 직접 사역하는 방법 10) 한국에서 지도자가 방문하여 집회를 인도하는 방법” [4]

태국과 캄보디아의 선교적 상황이 다소 다르고 정의되어진 방법들이 약간 애매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분류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현지 교회와의 협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인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서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첫번째 방법인 선교사들이 교회들을 개척하여 교단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교단 파송으로 나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이 곳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자기들이 소속된 교단의 교리와 정치제도가 같은 교단들을 만들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물론이요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침례교 등 선교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단을 형성 하였다. 이런 형태는 현지 교단과의 협력이 아닌 새로운 교단의 출현이기에 현지 교회와의 관계를 해럴드 풀러(Harold Fuller)4P 단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5]

두번째와 세번째 방법은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개신교 선교 역사가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1990년대 초까

4. 최승근.(2013).태국에서의 동반자 선교에 관한 연구: PCKT와 CCT의 선교협력을 중심으로.미션네트워크,30,119-145.

5. 해롤드 4P는 선교 단체와 현지 교회와의 발전되어져 가는 관계를 첫번째 개척(Pioneer), 두번째 부모 단계(Parent), 세번째는 파트너(Partner) 마지막 동참자(Participant)로 분류한다.

지만 해도 현지 교단은 C&MA에 의해서 세워진 KEC(Khmer Evangelical Church)가 가 유일한 교단이었는데 한국의 어떤 교단이나 선교부도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 사역하지는 않았다. 네번째와 다섯번방법은 개별적인 선교사가 현지 교회의 사역에 일부 참여하는 예는 있는 것 같다. 땅벡홍 목사가 사역하는 뉴라이프 휄로우십 교회 라던지 뚬늡뜩 교회 그리고 시엠립의 BCI 교회 같은 곳에서 일부 한인 선교사들이 예배에 참석하며 그 중 일부는 어느 특정한 사역에 참여 하기도 하였고 지금도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 이 두가지 형태로 협력하기에 한인 선교사들은 개척을 선호 하며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만큼의 큰 교회가 없는 것 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여섯번째 방법은 한인 선교사들이 사역하던 초기 부터 국제기아 대책기구(FHI), 어린이 전도 협회(CEF), OM, YWAM, OMF,인터서브 그리고 WEC 등 국제 선교단체에 멤버가 되어 한국 외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기도 하였다. 일곱 번째 방법은 선교사 개별적으로 연결된 교회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도움을 일시적으로 준 경우일 것이다. 여덟 번째는 프놈펜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시골지역의 캄보디아인 교회 개척 이나 캄보디아 목회자 훈련에 참여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 아홉 번째의 방법이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가장 많은 방법일 것이다.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있는 현지교회들과 친교에서 시작해서 서로 협력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각 지역마다 목회자 기도 모임 그리고 상조 모임이 있어서 그곳을 통한 교제와 사역의 협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교파적인 사역들 - 예를 들어 전도 폭발, TEE , 성서공회, EFC 등에 이사로 협력하는 경우이다. 마지막 방법은 한국에서 초청되어 저온 강사들의 집회에서 대회를 주관하는 위원회 그리고 인력 동원 까지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예들은 있어왔다.

3.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

협력을 방해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과 한인 외 다른 나라 출신 선교사들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굳건한 협력을 방해하는 일종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장애물들은 협력의 파트너인 캄보디아 현지 교회와 비한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들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한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특성 때문 일 수 도 있다. 신학적이며 교단적인 불 일치 또는 개개인의 성향과 성품도 있겠지만 한국인으로 한국 문화안에 있는 정체성 그리고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특성들이 협력의 장애

6. 김조동외 8인. “캄보디아 선교역사”. 첨탑. 서울. 2013. P. 227.

물이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현지인 사역자를 동등한 위치의 동역자로 여기기 보다는 위계적인 위치에서 지시를 받는자로 만 여기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교계의 지도자로 있는 헹첸 목사는 신랄하게 한인 선교사의 그런 고압적인 자세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러한 군림하는 자세는 단지 한인 선교사 뿐만 아니라 일부 필리핀 선교사들에게 서도 나타난다고 이야기 하였다. [7]

자문화 중심 주의, 권위주의, 성과주의 그리고 의존성(Dependency) 등 여러 이유들이 한국 선교가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고 한국 선교의 지도자들과 현장의 선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의사 소통의 어려움

협력을 구축하는 수단 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일것이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현지 교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선교사라면 당연히 크메르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현지인 교회들과 협력을 위한 가장 첫번째 과제 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선교사들이 크메르어를 배우고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크메르어가 문법적으로 한국어와 다른 구조에 너무 많은 자음과 모음 거기다 문자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에게는 큰 도전이기도 하다.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하기에는 나이가 연로 하신 선교사들은 더 더욱 큰 어려움을 토로한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크메르어를 습득하는데 주저하는 이유들은 첫째로 한국인에게 크메르어는 다소 어려운 언어이다. 앞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한국어와는 다른 문장 구조와 무엇보다 많은 자음과 모음으로 인한 발음의 부정확함 등이다. 둘째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쉽지 않는 연령이라는 것이다. 외국어 습득은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셋째로는 성과주의의 선교 풍토이다. 언어를 배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사역에 나서야 하는 것이 캄보디아 선교의 현실이다. 넷째는 한국어 통역자를 구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근로자로 다녀온 이들이며 캄보디아 학교에

7. A Discussion with Reverend Heng Cheng, Evangelical Fellowship Cambodia. https://berkleycenter.georgetown.edu/interviews/a-discussion-with-reverend-heng-cheng-evangelical-fellowship-of-cambodia March 13.2023.

서 한국어를 배운 캄보디아인들이 있기에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크메르어를 구지 배울 이유가 없기도 하다.

한인 선교사가 현지어를 습득하고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그로 인한 부족한 현지어의 실력은 단지 캄보디아만의 문제 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2005년 설악포럼에서 OM 선교회의 국제대표인 하워드 노리쉬(Howard Norrish)는 자기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와 그리고 그의 대상인 아랍인들 또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들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인 선교사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였는데 한인 선교사들의 단점들 중의 하나는 현지어인 아랍어 구사가 낮은 수준이고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도 낮다는 것이다. [8] 또 미국의 선교 연구 기관인 OMSC의 대표를 맡고 있던 넬슨 제닝스(J. Nelson Jennings) 2012년 한국선교연구원(KRIM)초청으로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선교라는 제목하에 강의에서 세계선교에 기여하는 한인선교사들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영어를 비롯해서 현지어를 익히는데 어려워 하고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일 교수도 한인 선교사를 평가 할 때 한국 선교사가에게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이상의 단점도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현지어의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현지어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입국 초기에 언어 공부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찍 사역을 시작해서 언어 공부 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평가 하였다. [9]

선교지도자나 선교학자들이 파악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약점이 현지 언어 구사력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현지교회와의 협력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

한인 선교사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문제는 단지 현지어 뿐만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과 협력을 위해서 공용어인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영어 사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필자가 경험 하는 바이다. 국제 선교단체에서 사역한지 25년째인데 영어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이다. 서구권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며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필자에게 가끔 피력해오는데 한인 선교사들의

8. 하워드 노리쉬(Howard Norrish), 설악포럼 발제 2005. https://missionpartners.kr/main/gmb_board_view.php?page=5&no=891&search=&page_no=51&category_no=&admin_page=&site_Number=1&GM_mobile=&sm_no=&search_option=&cls= 15. March 15, 2023.

9. 한국일. Ibid p 120.

10. 넬슨 제닝스. “세계 선교가 바라보는 한국 선교”. KRIM 선교 세미나 201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53741 14 March 14, 2023.

영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음을 사실이다.

2) 자문화중심주의

한인 선교사들의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과 한국문화를 이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많은 나라의 현지 교회들과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지적하고있다. 단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에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자문화 중심의 태도를 버리는 것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랄프 윈터는 서구 교회가 비 서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성장에 대한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문화 중심이 단지 한 민족 출신의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교회의 선교도 보편적 이었음을 지적 하였다. 현대 루터교회는 타이완에서 루터교파 형태로 급속하게 성장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이 문제의 핵심에는 문화적요소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이며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특정 문화 전통을 가진 교회만을 참 교회로 규정하려는 문화적 보수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1]

하워드 노리쉬는 한인 선교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나 비 한인 선교사의 팀동료들이 공히 지적하는 바는 한인 선교사들이 자문화 중심이 강하고 한국의 기독교문화를 이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와 20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제국주의하에서 식민지에 소위"백인의 짐(The White Burden)"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식민지문화를 대한 관점이 그 시대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기들의 잣대로 선교지 문화를 평가한 악행을 작금의 한인 선교사들이 따라 하지 않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 하였던 진 존슨 선교사는 그의 책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실수한 내용들을 그의 책에서 언급 하였는데

"서구 선교사들이 자기 민족 중심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풍요를 사역에 사용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값비싼 서구 기독교 형태를 복사한 사역을 탄생시킵니다. 이 행동은 그리스도의 지역

11. 랄프윈터(Ralph D. Winter).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 임윤택역. 고양.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12. p.93.

제자들이 그들 자신의 지역 자원과 문화적 표현을 동원하여 효과적인 전도, 제자도, 예배, 긍휼의 행위, 리더십 훈련, 교회 개척을 시행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12]

그녀의 고언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선교사의 문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한 사역들이 설령 외형적으로 성공해 보일지라도 캄보디아 교회에는 무해 함을 지적한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OMF Cambodia에는 약 23개의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다. 그 중에는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선교사들도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출신국가 선교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한인 선교사들 밖에 없다. 물론 몇 몇 나라는 비공식적으로 기도와 교제 모임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집행부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인 선교사들이 유일하다.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협력과 연대를 구축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유익한 모임이지만 자칫 다른 이들과의 연합에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실제적으로 한인 게토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 선교지에서 나오고 있다. [13] 우리에게는 친숙하지만 그러한 제도와 조직들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허물기보다는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3) 성과주의

필자가 2022년 발행된 2022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 요람에 등록된 한인 선교사 450 유닛의 파송 교단들 숫자를 세어보니 45개의 한국과 미국의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왔다. [14] 소속되어진 선교 단체는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인 선교사 한 명 당 16,000명의 캄보디아 인구의 비율인데 이를 한인 선교사의 대부분이 주재하며 사역하는 프놈펜에 적용하면 그 비율은 더 적어지기에 선교사간의 경쟁은 더욱 과열 되고 경쟁은 한인 선교사를 넘어 현지 교회와 비 한인 선교사의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성과주의 식 선교 방식은 마땅히 협력해야 할 현지 교회를 경쟁자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

12. Jean Johnson. "We are the Hero - A Missionary's Guide for Sharing Christ, Not a Culture of Dependency". Oregon. Deep River Books. 2012. p. 8

13. 하워드. Ibid. 실제적으로 필자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선교사 훈련에 Pre-field Orientation(선교지 입국전 선교훈련)과 Field Orientation(선교지에서 선교지를 이해하는 훈련)이 있는데 선교지에 입국해서 한인 선교사 커뮤니티를 통해서 -심지어 크메르어를 공부하는 것 까지- 하기에 협력의 대상인 캄보디아 교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본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14. 장로교 29개 교단(해외 한인들의 교단을 비롯해서)감리교, 순복음 2개, 침례교 4개(일본과 미국의 침례교 포함) 성결교 2개, 그리스도의 교회, 초교파 독립교단, 구세군, 형제교단, ECA, C&MA.

장신대의 안교성 교수는 한국 교회 선교의 성과주의의 폐해를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성과주의선교는 단기적으로는 선교 성장을 더 가속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교의 독이 되며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 성과주의 선교는 '꿩 잡는 게 매' 라는 식의 원칙을 무시하는 선교로 변질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용주의적 선교가 판을 쳤으며, 선교의 진정성 문제까지 대두되었다. 또한 성과주의 선교는 가급적 속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속성 선교로 이어졌다. 그리고 속성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돈 사용에 의존하는 돈 선교로 이어졌다.” [15]

이런 지적이 실제로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 나고 있는데 오석환 선교사는 그의 논문을 준비하면서 만났던 여러 캄보디아 목회자들로부터 한인 선교사들이 구제라는 명목으로 쌀을 나누어 주면서 현지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들의 교인들을 도둑질(Sheep Stealing)했다는 증언들을 이야기 한다. [16] 이런 한인 선교사들이 성과에 집착한 결과 캄보디아 현지 교회에 피해를 준 사례는 이미 한인 선교사 사역 초기부터 있었음을 한인 선교사들 스스로 인지 하고 있었다. [17]

이교욱 선교사는 2020년대에 지향해야 할 캄보디아의 선교 방식과 선교적의식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그 동안의 선교를 한인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업으로 인식하였다면서 거룩한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인 선교사들의 26년동안 선교방식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적 돈 선교, 제국주의적 갑질 선교 등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한인 선교사들의 잘못된 동기를 개선 해야한다고 주장 하였다. [18]

4. 협력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1) 섬김의 마음

협력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진 겸손의 태도(막

15. 김승호.”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6207 March 14, 2023
16. 오석환. “후원자와 의뢰인(갑과 을) 그리고 교회 성장학이 캄보디아에 끼친 영향”. 프놈펜 포럼 10주년 기념 자료집. 퍼플. 서울. 2020. P. 164.
17. 후원교회의 요청으로 교회개척이 시작되어 현지 교회에 출석하던 일부 선교사는 그 곳의 쓸만한 인재를 데리고 나온 경우도 있었다. 캄보디아 선교역사 p.226
18. 이교욱. “캄보디아 선교의 재고와 제안”. 프놈펜 포럼 10주년 기념 자료집. P. 197.

10:45, 빌 2:6-8)를 가져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인 헹첸 목사의 협력을 해 나갔던 방법에서 문화적인 고려를 잠시나마 해 볼 수 있다.

“ 캄보디아 문화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입 밖으로 그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고 다만 마음 속에 담아 둔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협력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 모두 가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둘째 같이 식사하였다. 세번째는 같이 기도 하기 시작하였다. 네번째는 협력 파트너들의 연고가 있는 장례식에 함께 참여 하였다.” [19]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큰 일을 함께하기 보다는 같이 식사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가족과같이 때론 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동참 하는 것이 협력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2)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감리교단의 캄보디아 선교가 캄보디아 현지 교회 및 비 한인들과 협력을 잘 해온 경우이다. 처음에는 각 나라의 감리 교단으로부터 파송 받아온 선교사들이 나뉘어서 사역을 해오다 하나의 감리 교단을 세우기로 동의하여 마침내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단이 되었다. 여기에는 한국 감리교단 소속 선교사가 사역을 처음 시작 했고 사역의 규모도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열린 마음으로 후발 비 한인 선교사들과 하나되려는 정신으로 연합을 위한 모임에 참여 하였고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한 걸음 씩 신뢰를 구축하면서 결국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20]

협력은 각기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신임 선교사들의 캄보디아 관한 오리엔테이션에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문화를 배우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협력을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도가 될 수도 있다.

19. A Discussion with Reverend Heng Cheng, Evangelical Fellowship Cambodia. Ibid.

20. 송진섭, 미간행물 “개척부터 이양까지 마무리된 사역 발표- 캄보디아 감리교, MCC를 중심으로” 한국 감리교단의 송진섭 선교사 가정이 1993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시작 하였고 1994년 스위스/프랑스 그리고 1996년 싱가폴과 1997년 미국 감리교단이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시작 했다고 한다. 한편 연합을 위한 첫번째 모임은 1996년에 시작 되어 2003년이 되어서야 온전하게 하나의 감리교단으로 출발 하였다.

5. 나가는 글

한인 선교사로서 지난 30년 동안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 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워졌음을 감사할 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인 선교사들의 수고 만으로 이룩한 것은 아니다.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비 한인 선교사들과의 다양한 협력에서 오늘의 결과가 있게 된것이다. 하지만 때론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의 상태가 있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반성하고 새로운 30년은 협력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김조동외 8인. “캄보디아 선교역사”. 첨탑. 서울. 2013.

김승호.”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6207 March 14, 2023

넬슨 제닝스(Nelson Jennigs). “세계 선교가 바라보는 한국 선교”. KRIM 선교 세미나 201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53741 14 March 14, 2023.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랄프 윈터의 비서구 선교운동사”. 임윤택역. 고양.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12.

송진섭, 미간행물 “개척부터 이양까지 마무리된 사역 발표- 캄보디아 감리교, MCC를 중심으로”주캄한인선교사회 한인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제 3차 선교포럼. 2022.

이교욱. “캄보디아 선교의 재고와 제안”. 프놈펜 포럼 10주년 기념 자료집

오석환. “후원자와 의뢰인(갑과 을) 그리고 교회 성장학이 캄보디아에 끼친 영향”. 프놈펜 포럼 10주년 기념 자료집. 퍼플. 서울. 2020. P. 164.

한국일.(2004).선교 120년과 한국선교의 미래.선교와 신학,14(),109-142.

하워드 노리쉬(Howard Norrish), 설악포럼 발제 2005.

https://missionpartners.kr/main/gmb_board_view.php?page=5&no=891&search=&page_no=51&category_no=&admin_page=&site_Number=1&GM_mobile=&sm_no=&search_option=&cls=
15. March 15, 2023.

최승근.(2013).태국에서의 동반자 선교에 관한 연구: PCKT와 CCT의 선교협력을 중심으로.미션네트워크,30,119-145

Jean Johnson. “We are the Hero - A Missionary’s Guide for Sharing Christ, Not a Culture of Dependency”. Oregon. Deep River Books. 2012.

A Discussion with Reverend Heng Cheng, Evangelical Fellowship Cambodia. https://berkleycenter.georgetown.edu/interviews/a-discussion-with-reverend-heng-cheng-evangelical-fellowship-of-cambodia March 13.2023.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n Missionaries and the Cambodian Church

Cho Hak-hyun (OMF Cambodia)

1. Introduction

2023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spread of the gospel on Cambodian soil. The history of Cambodian Protestantism began with the first step of Arthur & Esther Hammond's missionary couple. Just as Cambodia has experienced many turmoil and changes in history over the past 100 years, the Cambodian church has also come to this day after many twists and turns.

Meanwhile, this year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Protestant mission of the Cambodian church, but it is also meaningful because it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mission of Korean missionaries to Cambodia. Kang Chang-yoon and Missionary Joo Ji-ok in January 1993, entered the country as a long-term missionary stationed in Cambodia, and the Korean mission in Cambodia began.

This, on the other hand, indicates that Korean missionaries have begun cooperation with local churches in Cambodia and non-Korean missionaries.

The mission is to "collect the resources received from God by all churches in the world and perform them together in a cooperative relationship by sharing," Professor Han Kook-il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mission.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the Great Commitment, has never and cannot be carried out entirely by a church consisting of only one people and their communities.

However, there is a lot to be desired in terms of how well we have cooperated with Cambodian churches and non-Korean missionaries over the past 30 years. I have often heard from Cambodian church leaders and non-Korean missionaries, who are

partners in cooperation, that cooperation is not easy. The article first looks back on how we have cooperated with the Cambodian church and secondly on what parts of us are hindering cooperation, and thirdly, we conclude with some suggestions for cooperation.

2. Forms of cooperation that emerged in the 30-year history of Korean missionary work

When the first Korean missionary entered Cambodia in 1993, the Korean church sent about 2,700 people (in the middle of 1992 and 1994) as overseas missionaries, of which only two families and four were missionaries in Cambodia. However, in 2022, the number of Korean missionaries (excluding the number sent from churches outside Korea, including the Korean Diaspora Church), released by the same organization, KRIM, was 22,204. Among them, the number of missionaries sent to Cambodia was 844, and Cambodia was the sixth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missionaries. In 1993, Cambodia had a population of 12.2 million. This is 2.5 million per Korean missionary, and according to the report that Cambodia's population is 16.7 million in 2022, even if the number of Korean missionaries is calculated as a thousand, one Korean missionary will work for every 16,700 Cambodian population.

According to Steve Hyde, there were about 150 Cambodian churches in 1993. According to a 2017 survey by MK 2021, there were 3,194 churches reported. Referring to these statistics, the growth rate of the number of Korean missionaries is incomparably greater than that of Cambodian churches. It reveals how large the proportion of Korean missionaries is statistically in Cambodian Christian missions. Cambodian Korean missionaries have a position and role that must be cooperated.

In Cambodia, missionary Kim Jung-woong, who has long served in the Thai field, classified 10 ways to cooperate with Korean missionaries and local churches because it is not easy to classify them. I will refer to the classification.

"1) How missionaries create churches 2) How to cooperate with local churches and

form their own churches 3) How to help local churches and missionaries work equally 4)How to belong to local international mission organizations 5) How to cooperate with local churches to take responsibility for some of their ministries 6) How to work with local international mission organizations 7) How to help local churches indirectly 8) Type of sporadic cooperation centered on Korean churches 9) How to directly work with local people involved by missionaries 10) How to lead rallies by visiting leaders in Korea"

Although the missionary situation in Thailand and Cambodia is somewhat different and the defined methods are a little ambiguous, what is the cooperation with the local church in Cambodia under this classification?

The most preferred way for Korean missionaries to cooperate with local churches in Cambodia is for missionaries to pioneer churches and create churches. Most of the missionaries who came out to serve as Korean denominations pioneered churches here and created denominations with the same doctrines and political systems of their denominations. Presbyterian and Methodist, of course Missionaries such as the Holiness Church, the Assembly of God, and Baptistes pioneered the church and formed a church. This form is not cooperation with local denominations, but the emergence of new denominations, so it seems that the relationship with local churches can be explained in Harold Fuller 4P stage.

The second and third methods are not easy to find. This is because Cambodia's Protestant missionary history has 100 years, but until the early 1990s, when the church began to move actively with freedom of faith, KEC (Khmer Evangelical Church) was the only local church established by C&MA, but no Korean church or missionary ministry signed an official agreement. In the fourth and fifth methods, there seems to be an example in which individual missionaries partially participate in the ministry of the local church. Some Korean missionaries attend services at New Life Fellowship Church, where Pastor Ttangbek Hong is serving, and the BCI Church in Siem Reap, some of which have participated in certain ministries and are known to continue even now. One reason may be that Korean missionaries prefer pioneering because they

cooperate in these two forms, and that there is no church large enough for Korean missionaries to work. The sixth method has been a member of international missionary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Hunger Countermeasures Organization (FHI), the Children's Mission Association (CEF), OM, YWAM, OMF, Interserve, and WEC since the early days of Korean missionaries.

The seventh method would be a case in which churches connected individually to missionaries temporarily provided help when they were in difficult situations. Eighth, there are cases where Korean churches in Phnom Penh participated in the pioneering of Cambodian churches in rural areas or training Cambodian pastors. The ninth method may be the most common way for Cambodian Korean missionaries to cooperate with local churches. Often, they cooperate with each other, starting with local churches located in the area where missionaries work. There are pastoral prayer meetings and funeral meetings in each region, so there is companionship and ministry cooperation through them. And ultra-communist ministries - for example, cooperating as directors in evangelical explosions, TEE, Bible Society, EFC, etc. The final method is as follows. These are examples of cooperation with the committee that organizes the competition and local churches to mobilize manpower at the assembly of instructors invited from Korea.

3. Factors that hinder cooperation

What are the obstacles to cooperation of cooperation? Cooperation with Cambodian church leaders and missionaries from other countries besides Koreans is absolutely necessary, but it is true that there is a kind of obstacle that hinders solid cooperation. Such obstacles may be caused by local churches in Cambodia and non-Korean missionaries, who are partners in cooperation, but they may be primarily due to the unique culture or characteristics of Korean missionaries. There may be a theological and religious disagreement or individual tendencies and personalities, but the identity within Korean culture and the unique cul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hurch are obstacles to cooperation. For example, rather than considering local ministers as colleagues in equal positions, they are only regarded as those who receive instructions

from hierarchical positions. Pastor Heng Chen, the leader of Cambodian religion, pointed out the high-handed attitude of Korean missionaries. He said that such a ruling attitude appears not only in Korean missionaries but also in some Philippine missionaries.

Korean mission leaders and missionaries in the field said in unison that various reasons such as Ethnocentrism, Authoritarianism, Meritocracy, and Dependency are factors that make Korean missionary difficult to cooperate, and the following are notable factors in the Cambodian mission field.

1) communication difficultie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the means of building cooperation will be effective communication. For missionaries, it is to acquire local languages for smooth communication with local churches. For missionaries stationed in Cambodia, of course, learning and learning the Khmer language would be the first task for cooperation with local churche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missionaries have many difficulties in learning and using Khmer. Khmer is also a big challenge for missionaries due to the complexity of too many consonants, vowels, and letters in grammatically different structures from Korean. Missionaries who are old enough to learn a new foreign language express even more difficulties.

The reasons why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hesitate to acquire Khmer are first, and Khmer is a somewhat difficult language for Koreans. As mentioned earlier, the sentence structure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and above all, the inaccuracy of pronunciation due to more consonants and vowels. Second, many missionaries are not at an easy age to learn a language. It is a common fact that the younger you are, the more advantageous it is to acquire a foreign language. Third, it is a missionary climate of Meritocracy. The reality of Cambodian missionary work is that they must go to ministry without being given time to learn the language. Fourth, there is not much

difficulty in finding a Korean interpreter. Since there are Cambodians who have been to Korea as workers and have learned Korean at Cambodian schools, there is no reason to learn Khmer because they can work through them.

It is said that Korean missionaries have difficulty acquiring and speaking local languages, and the resulting lack of local language skills is not just a problem in Cambodia. At the 2005 Seolark Forum, Howard Norrish, the international representative of the OM Mission, research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Korean missionaries in dealing with Korean missionaries working in the Middle East, their target Arabs and company missionaries from other countries. One of the disadvantages of Korean missionaries is that their native Arabic is low, and their 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 is low. In addition,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Korean missionaries who contribute to world missionary work in lectures under the title of Korean Mission to the world by J. Nelson Jennings (KRIM), who was the head of OMSC, a U.S. missionary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Han Kook-il also pointed out that when evaluating Korean missionaries, there are many advantages for Korean missionaries, but there are many disadvantages beyond that, one of which is the lack of local language. He assessed that the reason for the lack of local language was that he started his ministry early and missed the time to study languages rather than focusing on language study at the beginning of his entry.

The weakness of Korean missionaries identified by missionary leaders and missionaries is that they have low command of local languages. This can naturally be the biggest obstacle to cooperation with local churches.

For Korean missionaries, the linguistic problem is not just local language. In order to cooperate with missionaries from other countries, they have to speak English, the official language, which is not easy. It is my experience that it is not easy to use English. It has been 25 years since I served in an international missionary organization, and English is still one of the difficult parts. Missionaries from the West sometimes tell me that they want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me, wondering about the ministry of Korean missionaries, but it is true that communication is not easy due to the

difficulties of Korean missionaries in English.

2) Ethnocentrism

Local churches and world missionary leaders in many countries point out that Korean missionaries lack 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 and tend to transplant Korean culture. It will not be easy for Korean missionaries with a single cultural background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but abandoning an attitude centered on Ethnocentrism is an important factor for cooperation.

Of course, Ralph Winter explained the inconvenience of Western churches' active church growth in non-Western areas, pointing out that the center of consultation was not only for missionaries from one nation, but also for Western churches. Taking the fact that the modern Lutheran Church, despite its rapid growth as a Lutheran form in Taiwan, does not recognize it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German culture, and at the heart of this problem lies a cultural element, which is self-centered.

"This is because people have an inherent cultural conservatism to define only churches with their own specific cultural traditions as true churches," he argued.

Howard Norrish pointed out that Korean missionaries have a strong Ethnocentrism and tend to transplant Korean Christian culture, both local missionaries and non-Korean missionaries working with Korean missionaries. Under the colonial imperialism of the Western powers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so-called "The White Burden" missionary's view of colonial culture influenced missionaries of the time.

Missionary Jean Johnson, who served in Cambodia for a long time, mentioned in her book the mistakes of Western missionaries.

"When Western missionaries use their ethnocentric influence and economic affluence in their ministry, they inevitably create a ministry that copies expensive Western

Christian forms. This action makes it almost impossible for Christ's local disciples to mobilize their own local resources and cultural expressions to implement effective evangelism, discipleship, worship, acts of compassion, leadership training, and church pioneering."

We need to listen to her advice. She pointed out that ministries that absolutely relied on the culture of missionaries without considering Cambodian culture are harmless to the Cambodian church, even if they appear to be successful in appearance.

OMF Cambodia, to which I belong, has missionaries from about 23 countries. Among them are missionaries from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Brazil. However, only Korean missionaries form the missionary society of Cambodia. Of course, some countries have informal prayer and social gatherings, but Korean missionaries are the only countries that formally form an organization and run an executive branch. It is a perfectly beneficial meeting if cooperation and solidarity are established through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but there are concerns that it will rather harm the alliance with others. In fact, stories about Korean ghetto are coming from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It is familiar to u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can go toward further strengthening rather than breaking down ethnocentrism.

3) Meritocracy

When I counted the number of Korean missionaries 450 units of Korean missionaries registered in the 2022 Korean Missionary Book in Cambodia published in 2022, I received them from 45 Korean and American denominations. There were too many missionary groups to be counted. As pointed out earlier, the proportion of the Cambodian population of 16,000 per Korean missionary is less applied to Phnom Penh, where most Korean missionaries preside and work, so competition between missionaries overheated and affected the ministry of local churches and non-Korean missionaries. The meritocratic method of missionary work has come to regard local churches that should be cooperated as competitors.

Professor Ahn Kyo-sung of Jangshin University talked about the harmful effects of meritocracy in Korean church missions.

"Performanceist missionary work can further accelerate missionary growth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run, it becomes a poison of missionary work and creates many problems. The meritocratic mission was transformed into a mission that disregarded the principle of "pheasant catching falcon," which led to pragmatic missionary work and even raised the issue of mission authenticity. In addition, meritocratic missionary work led to attribute missionary work that could achieve results as soon as possible. And it led to money missions that relied on the use of money a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achieving rapid missional fruits."

This criticism has been rising at the Cambodian mission site, and missionary Oh Seok-hwan tells testimony from various Cambodian pastors he met while preparing his thesis that Korean missionaries distributed rice in the name of relief and stole members of churches served by local pastors. As a result of these Korean missionaries' obsession with performance, Korean missionaries themselves were aware that there have already been cases of damage to local churches in Cambodia since the early days of Korean missionary work.

Missionary Lee Kyo-wook mentioned Cambodia's missionary method and missionary consciousness to pursue in the 2020s, saying that Korean missionaries recognized the mission as a holy project and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switch to a holy ministry. He criticized that the missionary methods of Korean missionaries for 26 years were patriarchal, capitalist money mission, and imperialist power, In the meantime, he argued that the wrong motives of Korean missionaries should be thrown off.

4. Some suggestions for cooperation

1) A heart of service

For coopera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Jesus must have a humble attitude (just 10:45, Bill 2:6-8) toward the leaders of the local Cambodian church.C. On the other hand, cultural considerations can be briefly given to the method of cooperating with Pastor Heng Chen, the leader of the Cambodian church.

" When there is a problem in Cambodian culture, you do not talk about it out of your mouth, but just keep it in your mind. So in order to achieve consensus, it must truly begin with the mind, not by coercion. For cooperation, first, we all shared the perception that we are one body of Christ, although the denomination is different. Second, we ate together. The third began to pray together. The fourth participated in a funeral where the partners had a connection."

What we need is to eat together, socialize, and sometimes sympathize with and join his difficulties with his family rather than do big things together.

2) Under long-term plans

This is a case in which the Methodist Church's mission to Cambodia has cooperated well with local churches and non-Koreans in Cambodia. At first, missionaries who had been dispatched from the Methodist Church in each country were divided into ministries, and they agreed to establish a Methodist Church in Cambodia, which eventually became a Cambodian Methodist Church. Despite the fact that missionaries from the Korean Methodist Church first started their ministry, they participated in meetings for the union with a spirit of service and open mind to unite with late non-Korean missionaries, and eventually formed a church.

Although coopera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given situation. For example, inviting Cambodian church leaders to orientation on Cambodia by new missionaries to learn culture and form relationships may also be a specific way for cooperation.

5. Conclusions

No one can deny that he has worked hard to evangelize Cambodia for the past 30 years as a Korean missionary. As a result, I am only grateful that many Christians and churches have been established on this land. However, not all of this was achieved by the efforts of Korean missionaries. Today's results came from various cooperations with Cambodian church leaders and non-Korean missionaries. However, sometimes there was a state of competition and conflict rather than cooperation. We hope to reflect on the factors that hinder cooperation in us and to effectively handle cooperation for the next 30 years.

References

Kim Jo Dong and eight others. "Cambodian missionary history". Spire. Seoul. 2013.

Kim Seung-ho. "What is the biggest cause of disputes at mission sites?"

,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96207 March 14, 2023

Nelson Jennigs. "Korean 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mission". KRIM 선교 세미나 2012.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53741 14 March 14, 2023.

Ralph D. Winter. "Ralph Winter's non - western missionary". Lim Yoon-taek Station. Goyang. the Book Publishing Mission of Jesus. 2012.

Song Jin-seop, an unpublished book,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that has been completed from development to transfer - Centering on Cambodian Methodist Church and MCC,"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Mission in the Korean Mission to the Korean Mission in South Korea. the Third Mission Forum. 2022.

Lee Kyo - wook. "the reconsideration and suggestion of the cambodian mission". Phnom Penh Forum 10th Anniversary Collection

Oh Seok-hwan. "the influence of patron, client (A and B) and church growth on Cambodia". Phnom Penh Forum 10th Anniversary Collection. Purple. Seoul. 2020. P. 164.

Korea Work. (2004).120 years of missionary work and the future of Korean missionary work.Mission and theology, 14(), 109-142.

Howard Norrish, presentation of the Seolark Forum 2005.

https://missionpartners.kr/main/gmb_board_view.php?page=5&no=891&search=&page_no=51&category_no=&admin_page=&site_Number=1&GM_mobile=&sm_no=&search_option=&cls=

15. March 15, 2023.

Choi Seung-geun. (2013).A Study on Companion Mission in Thailand: Focusing on Missionary Cooperation between PCKT and CCT.Mission Network, 30, 119-145

Jean Johnson. "We are the Hero - A Missionary's Guide for Sharing Christ, Not a Culture of Dependency". Oregon. Deep River Books. 2012.

A Discussion with Reverend Heng Cheng, Evangelical Fellowship Cambodia. https://berkleycenter.georgetown.edu/interviews/a-discussion-with-reverend-heng-cheng-evangelical-fellowship-of-cambodia March 13.2023.

포럼 2 (10:45~12:15)

주제 : 30년 동안의 캄보디아 교회 자립을 위한 한인선교의 공과

강사 : 장완익 선교사

사회 : 박영주 선교사

"30년 한인 선교가 캄보디아 선교에 미친 공과"

- 캄보디아 개신교회 자립에 30년 한인 선교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장완익 선교사

1.들어가는 말

사람의 나이 30을 보통 입지(立志) 또는 이립(而立)이라 부르는데, 이는 '뜻을 세우는 나이'라는 의미이다. 출생 이후, 부모의 보호 아래 본능을 따라 행동하다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나·너·우리를 알아가는 10대,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라는 의무 교육 기간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질풍노도의 20대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5~10년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30대이다. 필자는 30년 전인 1993년, 타 문화권 선교에 뜻을 세우고 베트남으로 첫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오늘 필자의 해외 선교 지난 30년을 돌아봄과 동시에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년을 나누게 되었다. 이제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 역시, 앞으로 가야 할 길과 캄보디아 선교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뜻을 세울 때가 되었다는 마음이 가득하다. 특별히 지난 1월은 캄보디아 복음 100주년과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이 겹치는 때였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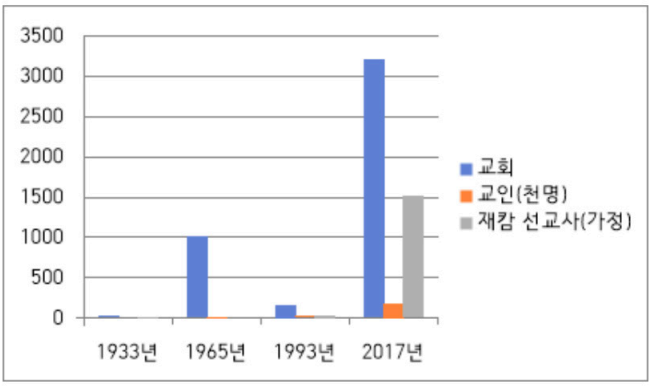
필자가 30주년 선교대회 실행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요청받은 주제는 '30년 한인 선교가 캄보디아 선교에 미친 공과(功過)'인데, 주제에 따라 일부 내용은 상당히 민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돌아봄-성찰과 반성 또는 평가의 기회가 없거나 약할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와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한인 선교의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나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드린다.

2. 30년 한인 선교가 캄보디아 선교에 미친 공(功)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캄보디아에서의 한인 선교가 캄보디아에 미친 공은 상당히 많다. 이를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1923년 1월 말,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소속, 아더 하몬드(Arthur L. Hammond) 선교사 부부의 캄보디아 입국에서부터 1993년 1월 중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소속, 강창윤·지주옥 부부 선교사의 캄보디아 입국 이전까지, 교회당 건축을 비롯한 교회 개척은 캄보디아에서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캄보디아 개신교 역사에서의 교세 현황을 참조하면, 1933년에 교회 16개, 전도처 4개, 선교 교회 8개, 교인 304명 등이었고, 1948년에 첫 서양식 교회당이 바탐봉에 세워졌으며, 1965년에 교회 1,000개, 교인 2,000명, 세례교인 700명이었다. 1974년 12월, 공산화 직전을 기준으로 KEC(Khmer Evangelical Church)에서는 16개 교회협의회와 함께 성탄 행사를 했으며, 이때 15,000명이 참석하였고, 프놈펜에 31개 교회, 6,000명의 교인이 있었으며, 전국의 교인은 10,000명이었다. 폴폿의 캄보디아민주공화국과 헹삼린의 깜뿌찌어인민공화국을 벗어난 1990년에는 프놈펜에 10개 교회, 500명의 교인이 있었고, 약 3년 이후인 1993년 기준으로 150개의 교회, 10,000명의 교인이 있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교회 700개, 교인 35,000명이었으며, 2001년 기준으로 교회 1,000개, 교인 60,000명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교회 2,000개, 교인 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교회 2,697개, 교인 174,117명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교회 3,190개, 교인 170,814명이었다.



<표 1. 캄보디아 개신교회 역사에서의 주요 교세 현황>

이상의 역사 통계를 살펴볼 때, 1993년은 캄보디아왕국(Kingdom of Cambodia)이 세워진 원년이면서, 한국인 선교사를 비롯한 다수의 다국적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입국하면서 교회당 건축을 비롯한 교회 개척에 큰 진보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이 일에 한인 선교가 선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에 장기 주재하며 사역하는 선교사의 수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나는데, 캄보디아에서 장기 주재하며 사역하는 외국인 선교사를 약 3,000명으로 볼 때, 그 반 정도 또는 그 이상이 한국인 선교사라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며, 캄보디아에 주재하며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는 교단과 교파,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그 누구나 교회당 건축과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있는 것 또한 공공연하게 인정된 사실이다. 그렇기에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는 교회당 건축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인 교회 개척에 큰 공을 세웠다.

두 번째, 위 내용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개교회 개척을 넘어 교단을 설립하는 일에 귀한 이바지를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캄보디아 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송진섭 선교사를 중심으로 1995년, 한국 감리교회(Korean Methodist Church)를 시작으로 1996년, 싱가포르 감리교회(Methodist Church of Singapore), 1998년, 미국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the USA)와 세계 중국인 감리교회 연합회(World Federation of the Chinese Methodist Churches) 등 4개국 감리교 선교부 연합으로 “캄보디아 감리교회(MCC: the Methodist Church in Cambodia)”를 설립하였으며, 1997년에 설립한 캄보디아감리교신학교(CMBS: Cambodia Methodist Bible School)는 캄보디아 감리교단 설립의 모체가 되었다.

이러한 감리교회의 연합 사역에 이어 한국 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은 문찬식 선교사(통합), 김정호 선교사(합동) 등은 EFC(Evangelical Fellowship of Cambodia)에 개교회를 등록하러 갔다가 당시 헹쳉(Heng Cheng) 사무총장으로부터, ‘장로교’는 알겠는데, ‘합동’은 무엇이고 ‘통합’은 무엇이냐? 는 질문을 받은 이후 장로교 연합 사역을 고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7월 8~9일, 합동·통합·고신·대신·백석·합신·고려 등의 교단에 속한 23유닛의 장로교 선교사가 ‘지도력개발세미나’를 가지며 ‘캄보디아장로교공의회(CPCC)’라는 장로교단의 기초를 놓았고, 2004년 10월 5일에 개교한 ‘캄보디아장로교신학대학교(CPTI: Cambodia Presbyterian Theological Institute)’는 현재, 캄보디아 최대 규모의 신학교로 발전하였으며, 2013년 7월 9일, 5인의 캄보디아인 장로를 포함하여 ‘캄보디아장로교독노회(PPCC: the Presbytery of Presbyterian Church in Cambodia)’를 설립함으로 캄보디아 개신교회 가운데, 주요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하나님의성회(AOG), 캄보디아 침례교회, 캄보디아 성결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공동체(MAC: Mission Alliance of Cambodia)와 헤브론병원(HMC: Hebron Medical Center) 등은 캄보디아 한인 선교가 자랑할 수 있는 교단 설립 또는 선교 인프라와 의료 분야의 연합 사역이다.

세 번째, 캄보디아 한인 선교는 캄보디아 기독교 교육에 큰 공을 세웠는데, 지난 30년간, 열악한 대내외적 여건을 이겨가면서 캄보디아 전국 25개 시도에 수백 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와 직업 기술학교, 한국어학원, 각 교단 배경의 신학교 등을 세우고 운영하였으며, 상당수의 선교사는 한국 배경의 기독교 교육 외에도 캄보디아인으로 구성된 현지 학교에서 교사로, 강사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어·영어·태권도 또는 특정 전문 과목에서 캄보디아인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캄보디아 한인 선교 초기에 세워진 여러 학교에서는 벌써, 그 학교를 졸업한 캄보디아인이 그 학교의 교사가 된 경우가 많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 대학과 대학원에 많은 캄보디아인 기독 학생들이 유학 중인데, 프놈펜기술학교, 트모다학교, 어린이전도협회(CEF: Child Evangelism Fellowship in Cambodia), 호산나학교, 꿈과미래학교, 희망의학교,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교(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캄보디아 라이프대학(Life University), 이화스렁학교, 글로링크국제학교, 꼬마캄보디아 등은 캄보디아 한인 선교 가운데 기독교 교육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모두 주지하다시피, 근현대 대한민국 발전의 두 가지 원동력은 '기독교'와 '교육'이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뿌리가 하나이다. 구한말 대한제국에 입국한 서구권 선교사는 초기 복음 전파 사역 중, 수많은 기독교 배경의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제시대의 암흑기 그리고 6·25 동란을 겪는 중에도 수많은 기독인 한민족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지금 캄보디아 상황과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 여건이 어느 정도는 다를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교육의 책무와 사명은 같다. 병원이나 학교 없는 마을은 있어도 불교 사원이 없는 마을은 없다는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교사가 부족하여 캄보디아어를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승려가 캄보디아어를 가리키는 캄보디아의 현실 속에서 캄보디아 기독 교육 사역과 신실한 기독 교사 양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 일에 한인 선교가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네 번째, 한국인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정감이 풍부하며, 어려운 이웃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다. 그렇기에 캄보디아 한인 선교는 한국 교회의 물심양면 원조가 한몫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의료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캄보디아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곧 캄보디아 한인 선교의 귀한 열매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인 선교를 통하여 캄보디아인에게 전달

된 헌금, 장학금, 구제비 등을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당연히 헤아릴 수 없으며, 이는 불교를 국교로 가진 캄보디아에서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성경에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다. 특별히 의료 혜택이 닿지 않는 시골과 오지,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많은 캄보디아인에게 장학헌금, 각종 의료 혜택과 구제 사역, 기독교 배경의 지역개발과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사역을 시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캄보디아에서의 한인 선교의 장점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데, HIS(His International Service), 따크마으 명성센터(Bright Voice), 기독교연합봉사관(코이노니아센터), 한국과 연계하는 정기 심장 수술, 옥수수재단 등은 캄보디아 한인 선교 가운데 이 분야에 드러난 열매이다.

다섯 번째, 캄보디아인의 세계관과 문화, 종교, 역사 등을 연구함으로 캄보디아 선교에 상당히 이바지하였는데, 프놈펜포럼, CRRC(Cambodia Research & Resource Center),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ICCHI: Institute for Cambodia Church History), 캄보디아 문화종교연구소와 캄보디아선교연구원(CMI: Cambodia Mission Institute) 등이 대표적이다.

3. 30년 한인 선교가 캄보디아 선교에 미친 과(過)

지난 1993년 이후부터 오늘까지,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한인 선교사 또는 한국 교회의 캄보디아 선교 30년을 돌아볼 때, 아래 몇 가지는 부족한 점으로 여겨지며, 이의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캄보디아 한인 선교를 대표하는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KMAC: Korean Missionary Association in Cambodia, 이하 선교사회)'는 이름과 27년 역사 그리고 850여 명 회원 규모와 달리, 그 책무와 전문성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캄보디아와의 국가 외교/영사 업무를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찾고, 캄보디아에의 투자/무역 업무를 위해 주캄보디아 코트라(KOTRA) 그리고 캄보디아 비영리 사역이나 봉사 업무를 위해 주캄보디아 코이카(KOICA)를 찾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를 찾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1년 임기의 회장과 임원들에게 캄보디아 한인 선교의 중책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캄보디아 한인 선교는 고비용 저효율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캄보디아에는 선교사로 파송 받았지만 선교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선교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여 개의 한인 교회와 2,000명 이상의 교인, 대사관과 한인회 등의 유관단체가 있는데, 이들 모두 넓은 의미의 캄보디아 한인 선교 참여자이면서 또한 주인공이다. 그런데 선교사회에서는 그들을 넓은 의미의 캄보디아 한인 선교 대상과 영역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중심의 좁은 캄보디아 한인 선교로 제한하는 경향이 강하며,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10,000여 명의 한인 교민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8,000명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것 역시 20여 개의 한인 교회에만 주어진 책무가 아니라 캄보디아에 파송 받은 한인 선교사의 공동 책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캄보디아 교회 지도자와 교인 그리고 비 한국인 선교사에게 자립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캄보디아 한인 선교의 공적 다섯 가지-교회, 교단, 기독교 교육(학교), 구제와 긍휼 그리고 연구 분야의 씨앗이 '자립'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어 그대로 시들어버릴 수도 있다(마 21:19).

특별히, 교회 분야의 사역은 캄보디아인 교인 스스로 전도하도록 하고(자전), 캄보디아인 목회자 또는 평신도 지도자가 목회 지도력을 가져야 하며(자치), 재정 역시 그들이 스스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목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자립). 자립에 대해 논할 때,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는 경제적인 자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춘 교회였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의 배경과 온정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 자립 사역은 요원하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한 번 더 언급하며, 특별히 필자가 작년 3월, 캄보디아 교회사연구원(ICCHI)을 통해 발행한 논문 "캄보디아 개신교회 자립정책 연구" 단행본을 참조하기 바란다.

세 번째,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선교사회는 종교부·내무부·교육부·문화부 등 캄보디아 정부를 시작으로 EFC를 비롯한 캄보디아 기독교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한인회 등의 단체와 공식적인 관계를 하고 있으며, 850여 명의 한인 선교사 회원 사역 분야와 지역·영역도 날로 넓혀지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회 임원 역할이나 고유 업무는 27년 전과 비슷하며, 평가와 통계 수집 및 분석을 배경으로 캄보디아 선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발표·제안하는 연구·개발(R&D: Research & Development) 사역 또는 업무의 중장기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최소한의 전문 사무원 활용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필요성을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

는 현실에서, 이러한 주제의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캄보디아 한인 선교의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개발의 순환을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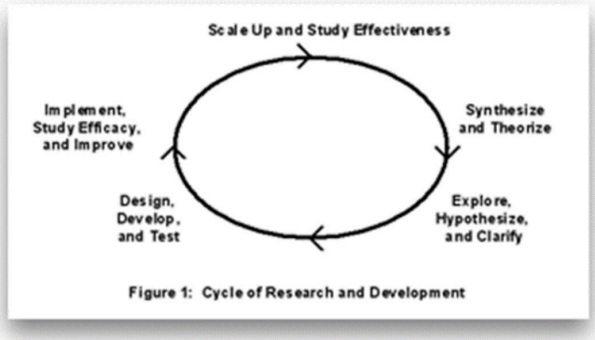


Figure 1: Cycl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네 번째, 한국에서 발생하여 캄보디아에 진출한 많은 이단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선교사회 안에 상설 조직인 '이단대책위원회'가 있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도 여러 번 가졌으나 아직도 킬링필드 전시관 내, 통일교에서 만든 국제평화 홍보 공간의 폐쇄 요청을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교계 지도자 중 한 명인 새생명교회(New Life Church) 땅벡후엉(Taing Vek Huong) 목사가 요청한 '안상홍 집단'의 이단 증명 동영상 제작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캄보디아인 교계 지도자와 교인은 한국 교회 파송의 한인 선교사와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가 안수받은 목회자 부부이기에 교회·신학교 사역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캄보디아 미래 세대는 교회와 사회 두 영역 모두에 있기에 프놈펜의 각 대학 특별히, 실력 있는 일반대학교에 한인 선교의 선한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미치기를 바란다. 우리가 개별 사역으로 분주하여 또는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곳에 각종 이단과 사이비는 캄보디아 미래 지도자를 손쉽게 그들의 제자로 세우고 있다.

4. 캄보디아 개신교회 자립을 위한 한인 선교의 책무

캄보디아 한인 선교와 캄보디아 개신교 자립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는 캄보디아 개신교회의 반 이상에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가 또는 한국 교회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지정학적인 면, 유사한 농경 문화 등을 그 배

경으로 한다. 캄보디아 개신교회의 자립을 위한 한인 선교의 책무 감당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첫 번째, 교회 지도력 이양: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는 캄보디아인 대상의 교회 사역 시, 교회 대표라는 행정적 지도력과 주일 예배 시의 설교 기회를 캄보디아인 교회 지도자 또는 사역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위임해야 하며, 최소한 이에 연관된 대화를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중장기적 교회 자립과 지도력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즉, 교회 지도력과 강도(講道) 권은 캄보디아인 교회 지도자나 사역자에게 이양하되, 그 지도자와 사역자를 훈련하고 격려하는 것은 선교사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 재정 지원의 단계적 중단: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는 캄보디아인 교회 지도자나 사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을 단계적으로 축소 후 가시적 시간에 중단해야 하며, 이에 연관된 대화를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중장기적 재정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는 개인 선교사의 의지로 시행되기 어렵기에 교단별 또는 선교단체별 결정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교사회에서 이러한 정책까지 결정하는 배경과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공동 관심사 개발: 상기 두 가지의 시행은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와 캄보디아인 교회 지도자 또는 사역자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적 지도력 이양과 재정 지원 중단 이후, 양쪽의 관계가 정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한 공동 관심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가 먼저 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인 교회 지도자나 사역자에게,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로부터의 정기적 재정 지원 중단은 마치, 몸담았던 직장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며, 서로의 진실한 마음을 성경적 기반 위에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전보다 더욱 공고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역할 분담과 배치: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는 교회와 학교 사역 등, 직접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 가능하면 더 많은 캄보디아인 사역자와 교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행정적인 면의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물러날 준비를 하며, 재정적인 면에서는 최대한 자비량 체제로 즉, 캄보디아 안에서 조달되도록 여러모로 연구하고 시도한다. 즉, 한국이나 북미주 등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의 후원이 캄보디아인 대상의 교회와 학교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캄보디아인 안에서 후원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반면,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는 선교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견고한 선교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시간과 재정 그리고 은사를 기울이며, 소속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캄보디아 연합 사역 또는 협력 사역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소속감 고양: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가 사역 중인 캄보디아 개신교회 미래를 위해, 그 교회가 소속한 교단은 어떤 교단인지 그리고 그 교단 캄보디아인 지도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 중, 캄보디아인 대상의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미래 즉, 교인이나 교회 대표를 어떻게 세우며, 언제 지도력을 이양할지 그리고 캄보디아인 대표의 교회 직분을 장로로 할지 아니면 목사로 할지 등에 대해서 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선교사가 있다. 심지어는, 선교사 자신이 속한 교단이나 교파에 대한 의식이 약하며, 때가 되면 캄보디아인 교인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5. 나가는 말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는 1993년 1월부터, 그 활동이나 영향력 그리고 재정 사용의 규모 등의 여러 면에서 캄보디아 개신교회 자립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교회 사역을 하기보다는 선교사가 속한 교단이나 선교단체를 통한 협력 또는 연합 차원의 교회 사역을 지향하고,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의 대표 창구인 선교사회를 통해 캄보디아 개신교회 및 캄보디아 주재 비 한국인 선교사 그룹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사역을 시행함으로 캄보디아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자립 정책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는 선교사회 차원으로 또는 소속 교단과 단체 차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오랜 선교 역사를 가진 C&MA 캄보디아선교부 그리고 C&MA를 통해 캄보디아에 세워진 KEC 복음 교단과 정기 미팅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캄보디아 개신교회 역사를 잘 정리하여 전시하는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의 전시실을 방문하거나 캄보디아기독교박물관 개관 준비에 참여하는 것 등은 한인 선교 30년이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년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귀한 동역이라 생각한다.

참고 목록

김조동 외, 『캄보디아 선교역사』, 서울: 도서출판 첨탑, 2013.

장완익, 『캄보디아 개신교회 자립정책 연구』, 프놈펜: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 2022.

ICCHI, 『100 Years of Khmer Mission』, Phnom Penh: ICCHI, 2020.

1. Introduction

A person's age of 30 is usually called a location or an Irip, which means the age of establishing a will. After birth, teenagers who follow their instincts under the protection of their parents and get to know themselves or you or us by entering kindergarten or elementary school, 20s of Jilpungnodo, who enters college or starts social life after elementary school, and 30s. In 1993, 30 years ago, I decided to do missionary work in other cultures and received my first mission to Vietnam, and today, I looked back on the past 30 years of my overseas mission and shared 30 years of Cambodian Korean mission. Now, I am also full of feelings that it is time to set a specific will on the way to go and the direction of the Korean mission in Cambodia. In particular, January was the time whe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Cambodian gospel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Cambodian Korean mission overlap, so it can be said to be even more meaning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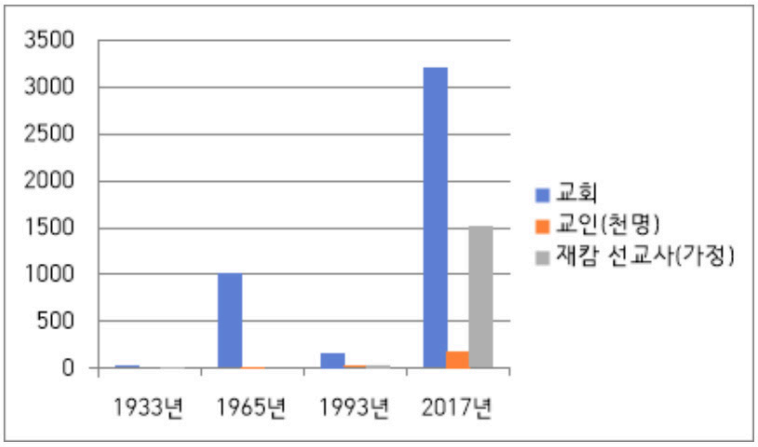
2. The contribution of the 30-year Korean mission to the Cambodian mission

Looking back on the past 30 years, the Korean mission in Cambodia ha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Cambodia. Several representative cases are as follows.

First, church development, including church building, was not very active in Cambodia at the end of January 1923, from the entry of missionaries Arthur L. Hammond, a member of the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C&MA), to the reform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mid-January 1993.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church in Cambodian Protestant history, there were 16 churches, 4 evangelicals, 8 missionary churches, and 304 members in 1933, and the first Western-style church was established in Batambong in 1948, with 1,000 churches, 2,000 members, and 700 Christians in 1965. In December 1974, just before communism, the KEC (Khmer Evangelical Church) held a Christmas event with 16 church councils, attended by 15,000 people, 31 churches and 6,000 church members in Phnom Penh, and 10,000 church members nationwide. In 1990, outside the

Democratic Republic of Cambodia in Pol Pot and the Kampucheer People's Republic in Hengsamlin, there were 10 churches and 500 members in Phnom Penh, and about three years later, as of 1993, there were 150 churches and 10,000 members.

However, in 1999, there were 700 churches and 35,000 members, and as of 2001, it increased to 1,000 churches and 60,000 members, and in 2006, it increased to 2,000 churches and 200,000 members. In 2012, there were 2,697 churches, 174,117 members, and as of 2017, 3,190 churches and 170,814 members.



<Table 1. Status of major religious forces in the history of Cambodian Protestant churches>

Looking at the above historical statistics, 1993 was the first year of the Kingdom of Cambodia, and a number of multinational missionaries, including Korean missionaries, entered Cambodia, making great progress in church development, including church building, and Korean missionaries played a leading role in this. This is also evident in the number of long-term missionaries in Cambodia, with about 3,000 foreign missionaries in Cambodia, about half or more of them are Korean missionaries, and Korean missionaries stationed in Cambodia are also recognized to participate in church building and church development. Therefore, Korean missionaries working in Cambodia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Cambodian church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churches.

Second, it is somewhat related to the above, and it has made a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church beyond the development of the assembly opening.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e Cambodian Methodist Church was sent by missionary Song

Jin-seop from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n 1995,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n 1996, the Singapore Methodist Church in 1998, The Methodist Church (MCC) was founded in 1997 by the Cambodian Methodist Church (CMC) as a coalition of Methodist missionaries from four countries, the General Board of the Global Methodist Church in the USA and the World Federation of Chinese Methodist churches.

Missionary Moon Chan-sik and Missionary Kim Jung-ho, who were sent by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went to register for the opening with the Evangelical Fellowship of Cambodia (EFC), and learned from Secretary-General Heng Cheng at the time, what is "joint" and "integration"? After being asked, 23 Presbyterian missionaries from July 8-9, 2003 held a Leadership Development Seminar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uncil of Presbyterian Church Cambodia (CPCC) and along with it, Cambodia Presbyterian Theological Institute opened on October 5, 2004, as the largest Theological Institute in Cambodia, after that the Presbytery of Presbyterian Church in Cambodia(PPCC) was established, including five Cambodian elders, establishing it as a major denomination among Cambodian Protestant churches.

In addition, the Cambodian Church of God (AOG), the Cambodian Baptist Church, the Cambodian Mission Alliance of Cambodia (MAC) and the Hebron Medical Center (HMC) are joint missions in the field of mission infrastructure and medical care that Korean mission in Cambodia can boast of.

Third, Korean missionaries have made great contributions to Cambodian Christian education. Over the past 30 years, hundreds of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middle and high schools, universities, vocational technical schools, Korean language academies, and seminaries from each denomination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In many schools established in the early days of Korean missionary work, Cambodians who graduated from the school have become teachers of the school, and Cambodians who graduated from school often became teachers of the school, and many Cambodian Christian students are studying abroad at various foreign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cluding Korea. Phnom Penh Technology School, Tmoda School, CEF, Hosanna School, Dream and Future School, Hope school, Little Cambodia

and others are contributing to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among Cambodian Korean missions.

Phnom Penh School of Technology, Tmoda School, Child Evangelism Fellowship in Cambodia (CEF), Hosanna School, Dream and Future School, Hope School,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 Cambodia Life University (Life University), Ewhasrung, Glolink School, Little Cambodia, etc. Among the Korean missions in Cambodia, are contributing to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Fourth, Koreans, regardless of their distrust of believers, are full of affection and are not stingy in helping neighbors in need. Therefore, the Korean mission in Cambodia is played a part by the Korean church's physical and mental aid, which has been of considerable help to Cambodians who are relatively poor in economic and medical fields, which is a valuable fruit of the Korean mission in Cambodia. What is the amount of donations, scholarships, and relief funds delivered to Cambodians through Korean missions over the past 30 years? Naturally, it is incalculable, and it is helping to think favorably of Korean churches and Korean missions in Cambodia, where Buddhism is the state religion.

The Bible also said that salvation for neighbors in need is God's joy, and faith without deeds is dead. Scholarships, various medical benefits and relief ministries, regional development of Christian backgrounds, and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ministries need to be carried out many Cambodians living in rural, remote areas where medical benefits are not available.

His International Service (HIS), the Bright Voice, the Christian Union Volunteer Center (Koinonia Center), regular heart surgery linked to Korea, and the Corn Foundation are fruits revealed in this field among Cambodian Korean missions.

Fifth, the Phnom Penh Forum, the Cambodia Research & Resource Center (CRRC), the Institute for Cambodia Church History (ICCHI), the Cambodian Cultural and Religious Research Institute, and the Cambodia Mission Institute (CMI)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Cambodian missionary work.

3. The mistakes of the 30-year Korean mission on the Cambodian mission

Looking back on the 30 years of missionary work in Cambodia from 1993 to today, some of the followings are considered insufficient, a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est efforts from now on to solve it.

First, unlike the name of the Korean Missionary Association in Cambodia (KMAC), which represents Cambodian Korean missions, its 27-year history, and the size of 850 members, its responsibilities and expertise are very insufficient. How many people visit the Korean Embassy in Cambodia for national diplomacy/consul affairs with Cambodia, KOTRA in Cambodia for investment/trade work in Cambodia, and KOICA in Cambodia for non-profit ministry or volunteer work? But How many people visit the "Korean Missionary Society in Cambodia" for missionary work in Cambodia? It's something to think about. It is inefficient in many ways to fully entrust the responsibility of the Cambodian Korean mission to the chairman and executives of the one-year term, and over time, the Cambodian Korean mission will inevitably turn to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Cambodia is known as not only many Korean missionaries, but also most of them did not join the missionary society, and there are more than 20 Korean churches, more than 2,000 members, embassies, and associations, all of which are Korean missional partner in Cambodia and main performances. However, missionaries tend to limit them to narrow Cambodian Korean missions centered on the "KMAC" rather than accepting them as targets and areas of Korean missions with a broad 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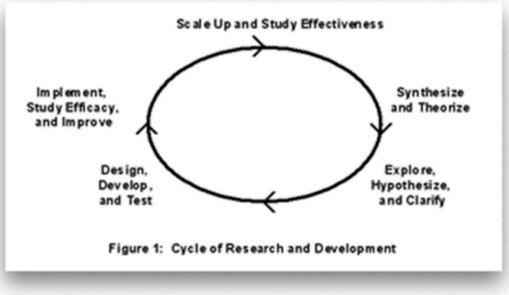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sharing the gospel to 8,000 Koreans who have not yet believed Jesus Christ are also the people whom Korean missionaries are responsible of, not just more than 20 Korean churches.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not show an example of Self-Church to Cambodian church leaders, church members, and non-Korean missionaries. If the five accomplishments of Cambodian Korean missionary work mentioned above, which

could be regarded as seeds for Self- Church - churches, denominations, Christian education (schools), relief, compassion, and research do not bear the fruit of "Self-Church," they may become fruitless figs and wither as they are (Matthew 21:19).

Cambodian pastors or lay leaders should have pastoral leadership (autonomy), and finances should be prepared, operated by pastors themselves (self-reliance). When discussing independence, Korean churches and Korean missionaries tend to think of economic independence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However, this is only one element, and all churche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the New Testament were fully equipped with these three things. As long as mission is based on capitalism, individualism, and materialistic background and compassion, Self-Church ministry is far away. This field will be mentioned once more in the next chapter, and in particular, please refer to the paper "Study on Independence Policy of the Cambodian Protestant Church" published by the Cambodian Institute of Church History (ICCHI) in March last year.

Third, as already mentioned, the missionary society has formal relationships with the Cambodian government, including the EFC, the Cambodian Christian community,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Cambodia, and the Korean Association. However, missionary executive roles and unique tasks are similar to that of 27 years ago, and based on evaluation, statistics collection, and analysis, Cambodian missionary strategies and policies have not even been established to use minimal professional clerks to help achieve mid- to long-term continuit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ministry or work.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esent these topics in the reality that suggesting this need for work is not acceptabl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is field once again for the future of Cambodian Korean missionary work, and the cycl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s expressed in a diagram as follows.



<Table 2. Cycle of R&D>

Fourth, we did not effectively cope with many heresies that occurred in Korea and entered Cambodia. There is a permanent organization within the missionary society, called the Heresy Task Committee, and several seminars related to relaxation, but it is not yet to deliver a request to the Cambodian government to close the international peace promotion space created by the Unification Church. The reality is that it is difficult for many Cambodian religious leaders and believers to properly distinguish between orthodox Korean missionaries and heresy that occurred in Korea.

Fifth, it is natural for most Korean missionaries to focus on church and seminary ministry because they are a pastor couple, but the future generation of Cambodia is in both church and society, so I hope that the good influence of Korean missionary work will be specifically on each university in Phnom Penh.

Various heresies and pseudoes are easily setting Cambodian future leaders as their disciples there, where we are busy with individual ministries or are not interested.

4. The responsibility of Korean missionary work for the Self-Church of the Cambodian Protestant Church

There i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mission in Cambodia and Cambodian Protestant Self-Church. This is because more than half of the Cambodian Protestant conference is believed to have been influenced on Korean missionaries or Korean churches directly or indirectly, which are based on the geopolitical aspects of Korea and Cambodia and similar agricultural culture. In order to handle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miss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Cambodian Protestant Church, I think it is necessary to move in the following direction.

First, church leadership transfer: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should gradually transfer and delegate administrative leadership as church representatives and preaching opportunities during Sunday services to Cambodian church leaders or ministers, with at least implement mid to long-term leadership transfer plans. In other

words, church leadership and right of conveying the word of God are transferred to Cambodian church leaders or ministers, but training and encouraging the leaders and ministers is accepted as the realm of missionaries.

Second, phased suspension of financial support: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should phase out their regular financial support to Cambodian church leaders and ministers and stop it in an appropriate time, and establish and implement mid- to long-term financial independence plans with regular conversations. Since this is difficult to implement with the will of individual missionaries, decisions by denomination or missionary groups should be made, and if possible, the missionary society should have the background and environment to decide on these policies.

Third, developing common interests: the above two implementations do not mean a break in relations between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and Cambodian church leaders or ministers. After the transferring of administrative leadership and the suspension of financial support, joint interests must be developed to ensur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ides continues regularly, which must also be developed first by a Korean missionary in Cambodia. This is because, for Cambodian church leaders and ministers, the regular suspens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can be like a sense of loss of their job. Therefore, sufficient dialogue is needed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 unilateral decision, and if each side confess with true hearts on a biblical basis, a stronger relationship can be formed with the history of the Holy Spirit than before.

Fourth, role sharing and deployment: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study and attempt to step down from the administrative front to ensure that more Cambodian ministers and teachers are in charge of direct Cambodian affairs, such as churches and school affairs. As for financial factors rather than support from churches and missionary organizations such as Korea and North America being directly and regularly delivered to churches and schools for Cambodians, being tried to develop sponsorship within Cambodians. On the other hand,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should devote time, finance, and grace to establish a stronger mission infrastructure

and network, focusing on missionary societies, and place greater with emphasis on the Cambodian union or cooperative ministry of their denominations or mission groups.

Fifth, raising a sense of belonging: For the future of the Cambodian Protestant Church, where a Korean missionary in Cambodia is servi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denomination the church belongs to and who the Cambodian leader is. Among the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there is a missionary who is not prepared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that is, how to establish church members or church representatives, when to transfer leadership, and whether Cambodian representatives will be elders or pastors. Even so, it is often seen that the missionary himself has a weak awareness of the denomination or denomination to which he belongs, and that Cambodian believers will decide on their own when the time comes.

5. Conclusion

Since January 1993,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independence policy of the Cambodian Protestant Church. Rather than conducting personal church service for Cambodians, the Protestant Church and non-Cambodia group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addition, Korean missionaries in Cambodia need to have regular meetings with the KEC Gospel Church established in Cambodia through C&MA Cambodia Mission, participating in the opening of the Cambodian Christian Museum.

References

Kim Jo-dong et al., Cambodia Mission History』, Seoul: Book Publishing Spire, 2013.

Jang Wan-ik, Study on the Independence Policy of the Cambodian Protestant Church, Phnom Penh: Cambodian Institute of Church History, 2022.

ICCHI, 『100 Years of Khmer Mission』, Phnom Penh: ICCHI, 2020.

포럼 3 (1:30~3:20)

주제 : 캄보디아 복음화율 1%대 원인과 돌파 전략

강사 : 김종식 선교사

사회 : 양순식 선교사

"캄보디아 복음화율 1%대 원인과 돌파 전략"

김 종 식 (GMP Cambodia)

Ⅰ. 서론

캄보디아 복음화율 지표가 심상치 않다. 2008년 '미션캄푸치아 2021'(MK 2021)의 '1마을 1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으로 2009년 0.90%이던 복음화율은 2012년에 1.30%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13년 1.19%로 낮아지더니 2017년에는 1.16%로 더 낮아졌다.[1] 5년동안 608개 교회가 사라졌고 867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어 전체 교회수는 3,194개가 됐으나,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COVID-19) 팬데믹으로 상당수의 교회들이 없어지는 고난을 겪게 됐다.

2022년에는 종교법까지 개정되어, 외국인 선교사에게는 예배허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복음화율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장벽이 생겨났으며, 2023년은 개신교 선교 100주년에 한인 선교 30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낮아지는 복음화율의 문제가 무엇인지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고, 위협과 기회요인을 찾아내어 1%대 돌파의 틈새를 개척하고자 한다.

Ⅱ. 본론

A. 1%대 돌파 기회를 찾기 위한 4가지 관점에서의 접근

1. 사회지표(social indicator) 관점

현대 선교의 흐름을 이끌어온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는 "사회변혁을 따라가지 못

1) 김종식, 캄보디아 자립선교 틈새(niche)전략 공유세미나(2009, 2012, 2017 MK 2021 자료 분석), 프놈펜, 선린교회, 2022.

하는 복음전도를 행한 잘못"(The Mistake of An Evangelism That Is Not Validated And Empowered by Social Transformation)을 서구 교회와 선교단체의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2] 8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서구 선교사의 경험을 아시아 선교사 에게 전해준다. '나 중심'(Me-ism)의 한계와 시야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스펙트럼으로 선교지 사회변혁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사회통계학에 기초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들을 활용한다.

2. 상황화(contextualization) 관점

복음주의 선교신학자 브루스 니콜스(Bruce Nicholls)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문화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복음의 순수성(the purity of the gospel)을 지키려는 열의에 차서 정작 말씀을 받는 자들의 관습, 생각패턴, 가치체계, 세계관, 삶의 양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선교사들이 상황화에 취약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상황화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유혹과 혼합주의(syncretism)의 위험성이 있다. 이를 경계하되, "상황화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변하지 않는 내용을 특정한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의 삶의 상황에 적절하고 의미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3]이 필요하다.

3. 토착화(indigenization) 관점

자치(self-governing), 자립(self-supporting), 자전(self-propagation)의 네비우스(John L. Nevius) 원리는 영국국교회 선교이론가 헨리 벤(Henry Venn)과 미국 회중교회 선교이론가 루파스 앤더스(Rufas Anderson)에게서 빌려온 '토착교회 선교이론'이다. 전략적으로 선교지 교회의 자립적인 힘을 길러주어 독립하게 하고 성장하면 선교사가 조속히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폴 히버트(Paul Hiebert)가 말한 자신학화(self-theologizing) 역시 토착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1885년 중국에서 네비우스가 시행하였고, 캄보디아에서는 모니봉 왕(King Sisowath Monivong)의 개종권유금지칙령[4] 이 내려졌던 1932년에 C&MA의 교회자립정책으

2) 김조동 외 8인, 캄보디아 선교역사, 주캄보디아한인선교사회 선교역사연구분과, 도서출판 첨탑, 2013, p.182

3) Bruce J. Nicholls, Contextualization: A Theology of Gospel and Cultur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79)

4) 1932 "King Sisawath Monivong's writing of an anti-proselytizing law prompted some C&MA missionaries ministering in Cambodia to consider relocating to Vietnam". http://www.cambodianchristian.com/article/?p=273

로 시도됐다(Hammond 1932, 28). 이어서 1955년에 재시도되었는데,[5]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역, 토착화의 바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

4. 내부자적 관점(emic view) 및 외부자적인 관점(etic view)

통찰력으로 번역되는 인사이트(insight)는 안(in)을 들여다본다(sight)는 뜻이다. 통찰의 사전적 의미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또는 특정 대상을 보편적인 시각이외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같은 능력은 먼저 자신의 내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선교학자들 또한 이와 같은 "내부자적 관점"을 갖지 못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Hiebert 1985, 94-97). 더불어 선교과제의 전체를 보기위해서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이 "외부자적인 관점"에 있다(Harris and Johnson 2003, 18-20). 이를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내부와 외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캄보디아 선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B. 캄보디아 선교-13가지 충돌 요인과 한인선교사 역할

1. 한인선교사 75%, 프놈펜과 수도권 중심 사역

2022년 11월 기준,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에 가입하고 사역중인 선교사는 834명에 450유닛(units)이다. 전체 75%의 사역과 자원(395유닛)이 관문도시 프놈펜과 수도권 그리고 일부 지방의 거점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다. 1개 유닛 당 평균 인원은 1.8명이고(자녀 별도), 2종류 이상의 사역을 하고 있다. 사역 종류는 28개 카테고리에 105가지에 이르며, 선교사의 60%가 교회개척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이어서 어린이사역(유치원사역 포함)과 교육사역이 주류를 이룬다(초/중/고/대/신학교 설립과 운영 및 교수, 교사 사역 포함)[6]

5) 김창훈,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지도력 이양에 관한 연구, (Ph.D, 풀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2014), p.12-p.13

6 2022년 11월 29일 시점으로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KMAC)에 가입하여 활동중인 선교사는 834명에 450유닛이며, 괄호( ) 안 숫자는 사역지다(중복 포함). 프놈펜(212), 껀달/따끄마으(60), 씨엠립(49), 깜뽕수프(38),깜뽕짬(23), 바탐방/시스폰(22), 따께우(18), 시아누크빌(18), 깜뽕츠낭(12), 쁘레이벵(11), 깜뽕톰(9), 끄라쩨(9), 깜뽓(8), 라타나끼리(7), 번띠민쩨이/뽀이뻿(7), 몬돌끼리(6), 스와이렝(5), 꺼꽁(5), 빠일린(5), 쁘레아뷔히어(4), 뽀삿(4), 뜨봉크몸(3), 스떵뜨렝(2), 우더민쩨이(2), 까엡(0).

2013년 1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발표에 의하면, 한인선교사는 169개국에 24,742명이다. 560명이 파송된 캄보디아는 10대 파송 국가중에서 9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2021년에는 800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파송 규모에서 7번째에 해당한다. 2022년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중인 선교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2배 정도인 1,500명가량 될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소통을 위한 방안이 찾아지고 사역 지역의 다각화 그리고 인적자원 분산에 대한 함의가 요구된다.

2. 간과하고 있었던 '3법'의 족쇄-헌법과 종교법 그리고 노동법

랄프 윈터 박사의 '사회변혁' 측면에서 살펴본다.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이란,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생기는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량주의적인 것과 혁명적인 것이 있다. 캄보디아는 킬링필드(Killing field)[7]에서 리빙필드 (Living field)7) 로 전환되는 국가구조의 혁신적인 변화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1) 헌법에 명시된 국가형태 [8]

제4조 : 캄보디아 왕국의 모토는 "국가, 종교, 왕"이다. 제7조 : 왕은 불가침이다.(1993)

제51조 : 캄보디아 왕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한다(1999년 3월 개정)

제56조 : 캄보디아 왕국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한다. 이 경제 체제의 준비와 과정은 법으로 정한다. (1994년 외국인투자법 재정, 1997년 노동법 재정, 최저임금제 도입, 1차년도 40달러, 2004년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수립

2) 신앙의 자유

제43조: 성별에 상관없이 크메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신앙과 종교적 숭배의 자유는 국가가 보장한다. 그러한 자유가 다른 신념과 종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질서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이다. 불교는 국가의 종교이다.

---

7) Don Cormack, Killing Fields Living Fields, 최태희 옮김, OMF Rodem Books, 2010

8) ILO, https://www.ilo.org 〉 KHM35789 PD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for 2021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 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본문 1항~12항까지는 캄보디아 왕국 헌법과 종교법 중에서 선교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미 국무부 • 국제종교자유국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했다)

3) 불교와의 관계

헌법 제43조는 불교를 국교로, 정부가 불교공휴일 준수, 종교훈련, 공립학교에서의 불교교육, 불교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신념과 종교를 방해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적 신념과 종교적 예배의 자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은 불교 사찰이나 영물을 훼손하는 행위, 승려에 대한 '모욕'(insult) 등 '국교 침해'(infringement on state religion)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한다. 이 법은 비(非) 불교 단체가 공개적으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非)불교 문헌(성경)은 종교기관 내에서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또한 사람들이 개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돈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종교활동과 교회 개척

헌법은 적절하게 실행되는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불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종교부(MCR)에 등록해야 하며, 종교단체의 목표를 정부에 알리고, 활동과 자금 출처를 설명하고, 종교 전파의 일환으로 다른 종교를 모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종교단체는 예배당을 짓거나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서로 최소 2km (1.2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종교부에 등록해야 한다. 당국은 미등록 예배장소와 종교 학교가 등록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

5) 종교다원주의-기독교와 충돌

제51조 : 캄보디아 왕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한다(1999년 3월 개정)[9)]

다원주의(pluralism)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복수주의'(many-ism)로 분야에 따라서 인식론적 다원주의, 윤리적 다원주의, 사회적 다원주의, 미적 다원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캄보디아 헌법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9) 캄보디아는 '크메르루즈'(1975~1979) 영향으로 아직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되는 오해들이 있으나, 1998년 '마지막 크메르루즈 군대의 투항'(훈센 총리의 최대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Win-Win 정책)으로 내전은 종식됐고, 2022년 9월22일 전범재판도 16년만에 끝이 났다. 이에 앞서 1999년 개정된 헌법에는 '입헌군주제'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국가정체성이 명시됐으며, 동시에 채택한 '다원주의'정책으로 국교(소승불교)와 여타 종교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개신교 선교 활동에 있어 노방전도, 축호전도, 개종목적의 선물 제공 금지에 관한 종교법의 이해와, 대형 집회 등 외부로 노출되어 자극하는(공격적인) 전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마22:21) 드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plural ism)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교인 불교 외에도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종교와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기에 유일신 사상의 기독교와는 공존할 수 없게 되며, 그러므로 이단까지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7월 17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6월 26일자로 승인된 기독교 선교금지령을 공식 발표했으며 "기독교인들끼리의 모임이나 활동은 허용하겠지만,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대중집회나 개별 방문 및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을 전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EFC소속 캄보디아 목사는 "우리는 이 명령을 준수하겠으며 정부에 맞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0] 이와 같이 복음 전도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전하게 되면 헌법의 다원주의 정책과, 다원주의 사회를 분열시키는 '실정법'(positive law)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지인 목사와 단체는 대외적인 활동에 정부 명령과 법을 따르겠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6) 국가지도자의 통치 관점-종교적 조화(Religious Harmonization)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훈센(Hun Sen) 총리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기독교 지도자와 교역자 만남'이 계속됐다. 매년 3,000~4,000명이 참석하는 모임에서 총리의 핵심메시지는 "종교적 조화"이다. 이것은 헌법 제43 조에 기초하고 있으나, 행사가 거듭될수록 종교의 자유는 크메르 루즈 '폴포트'(Pol Pot)로부터 쟁취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11] 훈센 총리는 크메르루즈의 마지막 군대가 투항했던 "1998년 캄보디아 역사 상 처음으로 하나 의 헌법, 왕, 왕실 정부 및 군대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었다" "모든 종교는 캄보디아 인민당 (CPP)의 지도 아래 존속 한다" "캄보디아 인민당이 집권하는 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지인이든 외국인이든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기독교인이 어떤 종파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그들 사이에 그리고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으며, 특히 2023년 1월에는 "우리는 우리 영토가 종교 갈등으로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종 및 종교 분열은 큰 재앙이므로 캄보디아 왕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12] 모든 기독교 지도자는 단결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 화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른 종교'[13] 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

10) 캄보디아, 기독교 선교행위 전면금지, 아시아기자협회, 2007년 7월 17일

11) https://pressocm.gov.kh/en/archives/5913 (2017.05.27) https://news-kh.churchofjesuschrist.org/article/cambodian-prime-minister-his-excellency-hun-sen-recognizes-christians (2017.06.12) https://pressocm.gov.kh/en/archives/30250 (2018.05.05) https://m.en.freshnewsasia.com/index.php/en/localnews/34382-2023-01-27-03-33-14.html (2023.01.27)

12)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식 연설(프놈펜 꺼삑, 2023년 1월 27일)

13) 훈센 총리는 통일교 천주평화연합(UPF)의 2022년 '선학 평화상' 특별공로상 수상자이며, 통일교(문선명) 한학자 총재와 '한반도 평화서밋' 공동위원장이다. UPF월드서밋 2020에 참석하기위해서 한국을 비공식 방문(2.3-2.7)할 정도로 통일교와 관계가 특별하다. http://sunhakpeaceprize.org/kr/laureates/laureates_view.php?idx=568 (검색일 2023년 3월20일)

7) 기독교에 대한 종교부의 인식

2017년 EFC 발표 자료에 의하면, 캄보디아 6개 교단 소속 교회는 3,194개이며 성도 수는 172,987명이다. 그러나 종교부장관 칸 소피룸(Khan Sophirom)은 2018년 12월 '제7차 종교간 대화' 워크숍(프놈펜)에서 "종교부에 등록된 개신교 교회는 479개, 종교학교 295개, 기독교인 89,000명이다" 반면에 "이슬람교는 335개의 모스크와 177개의 종교학교가 있으며, 무슬림 482,863명이다. 전국의 불교사원은 4,466개, 승려 56,301명, 불교학교 587개 (초549/중24/고12/대2)가 있다"고 했다.[14)]

2019년 1월, 종교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19개의 에큐메니칼 및 교회 단체'(19 ecumenical and ecclesiastical organisations)에 소속된 기독교인은 총 300,000명으로 이들 중에 로마 카톨릭 교인은 20,000명이다. 캄보디아 인구의 약 2%가 기독교인이며 2.5%는 무슬림이다. 이를 당시 인구 1,620만명로 재환산하면 기독교인중에 개신교인은 275,000명(1.7%)정도이고 무슬림은 405,000명(2.5%)이 된다. 2017년 EFC 자료와 2018년 '종교간 대화' 워크숍에서 발표된 숫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종교부에 여러 종류의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독교에 대한 종교부의 인식이다. 개척된 교회 3,194개의 일부만이 등록되었으나(479개교회, 89,000명), 이슬람교는 전체(335개 모스크, 482,863명)가 종교부에 등록 된 것으로 여겨지며, 성도 수에서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이로써 기독교가 이슬람교 보다 '소수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8) 이슬람 우대주의

2014년부터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라마단 이프타르(Iftar) 만찬을 조직하고 직접 주재해왔다(프놈펜 꺼삑 컨벤션센터).[15)] 최근 몇 년은 코로나 발병으로 잠시 중단됐으나, 2022년 4월 1일 라마단을 맞아 캄보디아와 전 세계의 무슬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이해를 구한 바 있다(3월31일 총리 페이스북).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57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 협력기구(OIC)를 비롯해서 글로벌 이슬람펀드(Halal fund) 등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력에 접근하면서, 캄보디아 무슬림공동체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이슬람 국가와 단체로부터 모

14) 제7차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워크숍, 2018년 12월 06일, AKP 프놈펜, https://www.information.gov.kh/articles/7411

15) congratulations to Muslim community in conjunction with Ramadan, Khmer Times, 1 April 2022,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ag/muslim/#!/story=post-161137

이프타르(Iftar) : "금식을 깬다"는 뜻. 라마단 기간 동안 일몰 전까지는 금식, 일몰 후에 가족과 친지와 함께 하는 푸짐한 첫 식사.

스크와 쿠란학교를 짓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캄보디아무슬림개발재단(CMDF)회장이고, 사회부장관은 캄보디아무슬림공동체개발(CMCD)회장이다. 이어서 메콩강을 따라 형성된 무슬림 집단거주지인 6개 주정부에 부지사급 고위직으로 무슬림을 임명한 바 있다.

훈센 총리는 깜뽕짬에 말레이시아 기금으로 건축한 모스크(2010)와 아랍에미리트 사업가의 후원으로 건축한 프놈펜 모스크(2015)의 준공식에 참여하여 공식 개관을 주도하고, 종교부의 예배허가서 발급 기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기독교 2년, 이슬람교 10년). 그뿐 아니라 프놈펜 소재 4층 건물 2개동을 캄보디아 무슬림공동체 운영위원회와 이슬람교육을 위한 24개 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2017), 모스크 발전기금으로 5천만리엘 (약 12,500 달러)을 후원했다. 이어서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Hijab) 착용을 허용하고[16] 사회진출의 정치적 배려를 약속했을 정도로, 훈센 총리와 캄보디아 정부의 이슬람 우대주의는 지속되고 있다.

9) 크메르 민족주의

제68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국민은 9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국가는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진흥시킨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크메르어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국민 평균 교육 수준은 5.1년이다. 9년(중3)까지의 무상교육(헌법 제68조)에도 못 미치며, 평균 교육기간 기대치 11.5년(고3)과는 거리가 멀다. 2022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학생 중에는 모국어인 크메르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며(36.3%), 쓰기를 못한다(53.9%). 산수 능력은 더 떨어진다(74.3%). 이처럼 캄보디아 공교육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 훈센 총리의 장남이며 차기 총리 내정자인 캄보디아 왕실군대(RCAF) 부사령관 훈마넷(Hun Manet)장군의 특별지시가 발표됐다(2023.2). 영어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캄보디아 소재 영국, 미국 또는 캐나다 등 모든 국제학교는 12학년 과정까지 크메르어와 캄보디아 윤리 및 전통문화를 가르치라는 것이다.[17]

현재 캄보디아 국제학교에는 크메르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 매우 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원

16) '크메르루즈'에 의한 대량 학살자 중 약 10만명은 무슬림 참(Muslim Chams)으로도 알려진 '크메르 무슬림'이다. 돼지고기를 금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계를 위해 대부분 메콩강 어업에 의존하며 6개 지역에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깜뽕짬, 끄라쩨, 깜뽕톰, 뽀삿, 깜뽓, 프놈펜). 학교와 직장에서 히잡과 전통의상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2008년 허용에 이어 2019년에 공식화됐다.

17) Neang Sokunthea, "Hun Manet calls for Khmer language class at int'l schools", The Phnom Penh Post, 13 Feb, 2023.

어민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다. 아이들은 캄보디아의 미래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럼에도 크메르 사람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아시아 최빈국이지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립학교의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국민들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대한 훈마넷 차기 총리의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런 그의 관점과 리더십은 종교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10) 더욱 강화되고 있는 종교법

1923년 C&MA선교사 아더 하몬드(Arthur L. Hammond) 부부와 데이빗 엘리슨(David. W. Ellison) 부부의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차례의 선교금지령이 내려졌다. 1932년 개종권유금지칙령, 1965년 베트남전쟁 당시 선교사 전원 추방, 1999년 개종목적 전도금지령, 2003년 1월 개종하거나 종교 선전(전도)금지. 2007년 6월, 가정 방문 전도금지와 음식이나 기타 지원물품 제공 금지 내용을 공개적으로 상기시키고, 2007년 7월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선교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바 있다.[18)]

기독교선교 100주년인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종교법은 '예배허가서 등록을 위해 교인 50명의 명단과 지장 날인, 교회부지가 교회 명의로 되어 있을 것과 교회대표가 현지인이어야 한다'[19)] 이전엔 외국인선교사 명의로 가능했던 조항을 현지인으로 대체했다. 이후 모든 교회를 전수조사하고 소급 적용하게 되면, 선교사의 영향력은 더욱 축소되고 사역은 위축될 것이다.

11) 종교인 형사처벌

2021년 12월에 캄보디아 정부는 '승려'의 사회 활동으로 "정당의 조직적 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행위. 집회와 시위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승려를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면서 불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승려 대신에 "종교인"(religious people)으로 명시했다. 즉 모든 종교인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독교 사역자도 법을 어길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20)]

18) Ibid, 밥그릇 크리스천 "rice-bowl Christians" https://factsanddetails.com/southeast-asia/Cambodia
19) 표명대,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미래과제들,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프놈펜, 목양교회, 2022, p.1
20) 정치적 시위에 참여하는 승려 제한 지침, 종교부(MCR),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미 국무부 • 국제종교자유국) 2021, 12.

12) 추가 제재 조항

제41조: 크메르 시민은 자신의 사상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 누구도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리고 국가안보. 언론의 체제는 법률로 정한다.

2022년 8월 초, 15,000명이상이 세계의 '대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엠립 쿨렌(Kulen)산 근처에서 열리는 켐 베아스나(Khem Veasna)의 세계종말집회에 모였다.[21] 자칭 "파멸의 예언자" 로 불리는 그의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소문에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외이주노동자 500명이 파송 국가를 무단 이탈하여 '농장 최후의 만찬'에 합류했다(한국 400명, 일본 100명). 10월 6일 켐 베아스나의 종말 예측은 불발됐으나, 그럼에도 1,500명 이상이 그의 농장에 남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돌아온 해외노동자의 자질과 송출국가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여 훈센 총리가 언론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고용주에게 사과를 했다. 이를 계기로 민심을 현혹시키거나 '과거의 전례'[22] 와 같은 기독교 집회는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13) 선교사 워크퍼밋과 사역자 노조

제36조: 성별에 관계없이 크메르 시민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이 될 권리가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캄보디아 장기체류에 필요한 'E'비자(business)를 받은 외국인은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소지해야 한다. 캄보디아 노동법 261, 264, 265조 및 법령 196호(2014년 8월20일)에 따라 종교부에 등록된 교회의 선교사에게도 취업허가증이 발급된다(1년). 따라서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는 고용주(甲)와 피고용인(乙) 관계로 노동쟁의(labor dispute)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법 적용을 받는다. 봉제 산업처럼 교회 사역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가능하고, 이 단계에 이르면 매달 지급하던 사역비는 급여가 되므로 매년 일정금액을 인상해줘야 한다. 의료보험(50%씩 분담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봉제업에서는 사업자가 100% 부담)과 보너스 외에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할 것이므로, 자립조차 안되는 교회의 헌금만으로는 사역이 어려울 것이다.

---

21) Yim Sreylin, 15,000 gather to survive 'catastrophic flood' prediction in Siem Reap, Khmer Times, August 29, 2022
켐 베아스나(Khem Veasna)는 캄보디아 제1야당인 민주당(League for Democracy Party)을 창당한 정치인이다.
22) Ibid (김조동 외 2013, p.113) "1994년, 미국의 전도자 마이크 에반스(Mike Evans)의 치유집회때 전국에서 프놈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70,000명 이상이 모였으나, 치유 실패로 집회는 난장판이 되고 그는 경찰의 호송을 받아 비상출국했다."

C. 네비우스의 '자립'-100년의 과제, 100년의 대물림

1. 사역자 재정지원 결과

1) 사례 1 : 1932년과 1955년 C&MA의 자립정책

영국의 헨리 벤(Henry Venn)과 미국의 루프스 앤더슨(Rufus Anderson)이 정립한 삼자정책은 당시 모든 선교기관의 선교전략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Beaver 1992, 67). C&MA도 이를 받아들여 1932년 캄보디아 기독교인 연례 컨퍼런스에서 현지인 사역자는 선교회로부터 더 이상 월급을 받을 수 없음을 발표한다. 이런 영향으로 몇 몇의 사역자들은 일을 그만두고 떠났으며 몇 명만이 남아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Hammond 1932, 28). 그 이후 1955년 C&MA 선교회는 다시 한 번 목회자에게 주는 모든 사례비의 보조금을 중단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를 사임하고 일반적인 직업을 찾았다.[23] "1923년-1932년 당시 10년동안 C&MA는 독립교회(Independent Churches)16개, 독립교회로부터 시작된 전도처(Outstations from above churches)4개, 선교 교회(Mission Churches)8개, 교인 304명과 성경학교 1개를 개척했다"[24]

2) 사례 2 : 교회개척운동(CPM)의 평신도 사역자 생활비

1993년 캄보디아에 첫 한인선교사가 입국했다. 정치적으로는 파리 평화협정에 따른 입헌군주제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이 실시됐다. 미국 남침례교단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국제선교부(IMB)의 데이빗 게리슨(David Garrison)에 의해 소개된 새로운 교회개척운동(CPM)이 바탐방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단기간에 무보수 평신도 지도자 들을 양성하여 15명 내외 셀 형태의 가정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CPM은 10년 동안 200개 교회 까지 개척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로써 가장 성공적인 교회개척모델로 평가받았으나, 현지 교단 으로 이양되고 매달 20~30달러씩 평신도 지도자에게 지원되던 후원금이 끊기자 2년 사이에 교회 수가 50개로 줄어들었다(2004-2006).[25] 캄보디아는 1997년에 노동법이 재정되고 최저 임금은 40달러였으며, 2005년까지 45달러, 2007년에는 50달러였다. 당시 가정교회

23) Ibid (김창훈 2014, p.13)

24) Ibid (김창훈 2014, p.11) & 장완익, 캄보디아 개신교회 자립정책 연구, ICCHI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 2022, p.28

25) 안희열, 캄보디아의 교회개척운동(CPM)에 관한 평가와 전략적 제안, Mission Magazine, 2011, p. 12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원받던 20~30달러와 비교가 된다.[26)]

3) 사례 3 : 농촌교회 지도자-'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빈곤'이다

2011년 스티브 하이드(Steve Hyde)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14,073개 마을 중에서 2,050개 마을에 교회가 개척됐다(14.5%). 교회지도자의 60%가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전임사역자는 12%에 불과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이거나 졸업(71%)이었고, 전임사역자는 8학년(중2) 중퇴 수준이었다. 교회지도자의 월 소득은 평균 43.12달러로 당시 봉제공장 최저임금 61달러에도 못 미친다. 생활 수준은 '매우 가난'(12%)를 포함해서 가난(46%)하고, 절반 정도는 보통(53%)이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의 핍박(49%)보다 '빈곤'(74%)이 더 크다. 신앙의 부족(1%)이나 못 배워서(18%) 보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25%) 믿음생활을 하지 못한다.[27)] 2011년 당시 세계은행의 국제빈곤선(World Bank-International Poverty Line)은 1.90달러였으나, 농촌교회 지도자 가족 1인당 수준은 이에 못 미치는 1.44달러로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 네비우스의 '자립'-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1)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스티브 하이드(Steve Hyde)에 의하면, "캄보디아 개신교회 건물 중, 89%는 외국 재정지원으로 건축되었고, 50% 교회는 침체되거나 문을 닫았으며, 오직 나머지 50% 교회만 유지되고 있다" (2011).[28)] EFC의 '1마을 1교회' 개척 운동 결과, 개척교회의 54%는 건물이 있고, 46%는 건물이 없는 가정교회, 셀교회 또는 사역센터이다(2017).[29)] 공통점은 '빈곤'의 문제가 심각하며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지원이 끊기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근원이 되는 빈곤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구제

26) 캄보디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정부(노동부)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노동자문위원회(Labour Advisory Commission, LAC) 의 자문을 받는다. 1997년 노동법 재정이후 합의되어온 최저임금 추이 1997년(40$), 2000~2005년(45$), 2006년~2007년 (50$), 2008년~2009년(56$), 2010년~2012년(61$), 2013년(80$), 2014년(100$), 2015년(128$), 2016년(140$), 2017년 (153$), 2018년(170$), 2019년(182$), 2020년(190$), 2021년(192$), 2022년(194$), 2023년(200$) 프놈펜 KOTRA 자료 종합, 2022

27) Ibid (김조동 외 8인, 2013, p.153-p.157)

28) Steve Hyde, 'Portrait of the Body of Christ in Cambodia', Asia for Jesus, Phnom Penh, 2011

29) Ibid (김종식, 2022), 2009~2012~2017 MK 2021 교차 분석.

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은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30] 네비우스의 '자립'에 대한 시도가 개신교 선교 역사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제는 빈곤 구제가 아니라 빈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 영적자본(spiritual capital)구축

1990년대 캄보디아는 유엔의 지속적인 국제원조에 의해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도로, 항만, 산업단지 건설 등 그러나 부작용 또한 크다. 선한 의도가 '악독한 구제'(toxic charity)가 되고 말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발표에 의하면 캄보디아 부패지수는 세계180개국중에서 160위이다(2022). 이렇게 부패지수가 높은 것은, 기술, 재정, 인력, 제도 등 개발에 따른 '사회적자본'(spiritual capital)은 구축했으나 그것을 운영하는 '영적 자본'(spiritual capital)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자본은 신용, 정직, 사랑, 봉사, 성실 등의 가치관으로 법이나 제도가 아닌 신앙의 기초 위에 형성될 때 축적된다.[31] 진심으로 드려지는 헌금 또한 여기에 속한다. 이때 비로소 일과 신앙의 연계와 통합, 복음 전파, 국가와 국민의 실질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선교적 목표(mission objective)를 달성할 수 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L. Berger)는 "영적자본은 종교의 교리, 가르침이 사회적 변혁과 영향력에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토착교인이 토착교회 목회자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를 책임지는 네비우스의 '자립' 또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3)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탈피 교육

캄보디아 여성들은 돈이 생기면 금으로 바꿔서 치장을 한다.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지, 금 귀걸이에 발목걸이까지 다양하다. 선교사가 보기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이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key-currency)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내전을 겪으면 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몸에 걸친 '금'뿐이었고, 지금도 은행은 불안하게 여기며 금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The number one problem in

30) 장세훈, '현 단계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66호, 2005, p.95-p.125
31) Ken Eldred, spiritual capital, https://www.missionfrontiers.org/pdfs/33-4-spiritual-capital.pdf, p.11-p.13

today's generation and economy is the lock of financial literacy)고 했다.[32] '금융문맹'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공립학교 기본과목이다.

한국금융감독원 '온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대학생/일반인) 과정이 있다. 수준별로 1~6개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한다.[33] 교회 자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콘텐츠들을 복음적으로 정립하여 선교사, 사역자, 성도의 삼위일체로 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돈은 우리 몸의 혈액과도 비유된다. 피가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하듯 돈이 잘 돌아야 성도들의 가정경제도 튼튼해지고 헌금과 십일조도 건실해진다. 돈에 관한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자립과 성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금융문맹'을 깨닫게 해야 한다.

D. 마지막 지상교회 개척-"그제야 끝이 오리라"

1. MK 2021 교회개척 목표 '11,525'

1996년 1월에 설립된 EFC의 '미션캄푸치아 2021'(MK 2021)운동은 '2021년까지 캄보디아 14,000여 개의 모든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2008년에 출범했다. 그 당시 1,841개 교회가 있었고, 15년이 되는 2023년 2월까지 1,364개 교회가 개척됐다. 누계 숫자는 3,205개 교회에 이르며, 11,525개 지역이 미개척으로 남아있다.[34] 현재 2025년까지 목표 수정이 되어있으나, 그동안 개척된 교회 숫자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최종 목표달성까지 135년이

32) 무려 19년동안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회(FRB)를 이끌었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명언이다. 금융문맹은 "한 사람의 경제 상황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 주변사람들까지 전파되어 가난에 빠트리고 급기야 국가 경쟁력까지도 갉아먹는 질병,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다.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 필요 없다. 간단한 금융지식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력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다. 캄보디아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관 형성과 드려지는 헌금 그리고 십일조 훈련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22년 10월 3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인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립선교 세미나가 있었다. 이때 '금융문맹' 탈피 사례로, 개척교회 사역자들이 36회 불입하는 적금통장 만들기가 시작됐다. 한 달에 30달러를 저축하면 3년후 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1,166달러의 목돈을 찾을 수 있다. 시작이 중요하기에 첫번째 1회차는 '하나님의 선물'로 선교사가 도움을 주고, 2회차부터는 사역자들이 납입을 한다. 한달에 조금씩 모이는 저축의 기쁨도 알게 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되며, 현재의 교회 사역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캄보디아 전통에 따라 남자가 준비하는 결혼지참금 '번다까'(បណ្ណាការ) 또는 딸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현 '틀라이 뜩더'(ថ្លៃទឹកដោះ)로 결혼때가 되면 빚을 지는 악습을 끊는데 도움이 되며, 불신자들에게 적금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효과도 있다. 동시에 필요한 재정훈련으로『왕의 재정』프로그램 중에 '하늘은행 통장'이 있다. 매달 지출되는 헌금과 십일조를 스스로 기록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재정과 하나님나라에 드려지는 재정을 분류해서 관리하며 지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33) https://www.fss.or.kr/edu/fem/eduProgram/view.do?menuNo=300003&programSlno=1 한국금융감독원 e_금융교육센터 온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

34) MK 2021캄보디아 교회사이트, 프놈펜을 비롯한 전국의 교회와 미개척 지역을 소상히 볼 수 있다. (cambodiachurches.org)

걸리며 복음화율은 대략 10.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C&MA와 EFC 그리고 KMAC 한인선교사회 등 모든 선교 단체와 융합선교전략 공유가 절실하다. 전국 25개 주의 미개척 지역은 캄보디아 교회사이트(cambodiachurches.org)에서 자세히 볼 수 있고, 교회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선정 하여 개척을 신청할 수도 있다. 11,525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이를 위한 MK 2021운동에 새로운 동력이 요구된다.

2. 빈곤 속의 개종(Proselytising amid the Poverty)

1979년 태국 국경 난민수용소. "국경 수용소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In the border camps just about everybody was a Christian" 1984년 태국 국경지대 18곳의 유엔 난민 수용소에 252,188명이 있었고, 1993년 초에는 대다수가 캄보디아로 보내졌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고향마을에 도착한 "개종자들은 기독교 단체가 약속하는 학교, 식량, 우물 및 관련 프로젝트와 같은 개발의 혜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인들조차 그들을 "밥그릇 기독교인"(rice-bowl Christians)이라고 불렀다.[35)]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회에 나오는 캄보디아인들의 숫자를 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2%는 족히될거라 추측했다. 그러나 얼마 전 캄보디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0.9%밖에 되지 않는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절반 이상이 교회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스스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의 삶이 변화되는 선교, 일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 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선교가 필요하다"(김태진 2013, 112).[36)]

2020년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18%인 280만명이 빈곤층이었으나, 2021년 코로나 대유행이후 46만명이 추가로 빈곤상태에 놓였다. 프놈펜(4.2%)과 도시(12.6%)보다는 농촌(22.8%)이 심각 하다.[37)] 교회와 선교사를 찾는 손길이 늘어나고 밥그릇 기독교인 '빈곤속의 개종' 또한 늘어날 터인데, 헌법은 사람들이 개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돈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간의 기독교 사회선교와 구제사역이 그렇게 비춰져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눠야 하지만, 복음 전도의 본질은 "구원과 회심"이다. 물질에서 성령으로 선물이 바뀌어야 한다. 회개와 세례에는 "성령의 선물"(the gift of the Holy Spirit)을 주신다(행2:38).

35) "Proselytising amid the poverty" & "rice-bowl Christians" https://factsanddetails.com/southeast-asia/Cambodia
36) 장완익 외,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 선교포럼, vision 2 Reality Foundation, 2013, p.112
37) 캄보디아 인구 280만명(18%)의 1일 소득은 약 2.6달러(10,951리엘). 세계은행의 '빈민'기준인 국제빈곤선 2.15달러(2022)와 캄보디아 빈곤선 2.17달러와 근사치의 수준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농촌 빈곤층은 세대당 50달러, 도시는 80달러-100달러씩 한차례 지원한바 있다. 받는 입장에서는 적을 수 있지만 누적 지원액이 7억4460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빈민 문제는 심각하다 (2022.8)

3. 농촌의 변화-청년이 없다

캄보디아 인구 1710만명중에서 15세 이상 총 노동력은 934만 5,426명이다(2021). 이들 중에 130만명은 아시아 7개국에 해외노동자로, 120만명은 프놈펜경제특구(PPSEZ)를 비롯한 봉제산업의 노동자, 나머지 63만명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이다. 이렇게 310만명이 마을을 떠났다(기타 산업 노동자를 계산하면 이보다 더 된다). 캄보디아 전국 가구수는 358만 가구이고, 그중에서 농촌 가구 수는 226만이다(2019).[38] 이를 감안했을 때 310만명(여성 180만 6천명) 이란, 농촌의 모든 가정에서 1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떠난 것을 의미한다. 시골에는 어린아이들과 농사때문에 남겨진 어른들 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사역과 교회개척은 이 같은 인구의 이동과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4. 관문도시 '선택과 집중'의 교회개척-'프놈펜 745'

MK 2021 운동은 프놈펜에 276개 교회가 있고, 추가로 745개 교회 개척을 요청하고 있다. 230만명의 도시는 외형적 확장을 계속하고 있고, 프놈펜경제특구(PPSEZ)는 젊은 인력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를 차지한다. 한인선교사 또한 전체 자원의 75%가 프놈펜과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타겟 맞춤전략으로 '선택하고 집중'하여 제자훈련을 한다면 1%대 복음화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고, 결혼적령기의 핵심계층이 전국 14,514개의 고향 마을로 흩어져 돌아갈 때는 복음과 함께 보낼 수 있다. 공장지대 쪽방촌에 몰려 사는 이들은 직업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서 공장을 자주 옮기는 특성이 있지만, 이를 고려한 접촉점이 개발되면 충성된 일꾼들과 풍성한 수확이 기대된다.[39]

봉제공 여성들이 한끼 식사에 소비하는 비용은 2000리엘(0.5달러)에 불과하다. "아껴야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2022.7)이며, 쉬는 날에도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멀리 가질 못한다. 이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며 '위로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크메르 사람의 정서, 농경 문화에 기반한 노래와 춤은 지금도 어디서나 유효하다. 결혼식때가 되면, 기쁨의 최고의 표현은 춤이고 노래이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출15:2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

38) 세계은행(WB) 개발지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총 노동력은 2021년에 9,345,426명이다. Labor force, total in Cambodia was reported at 9345426 in 2021, according to the World Bank collection of development indicators.

39) 프놈펜 경제특구(PPSEZ) 봉제공 대부분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여성들이다. 점심 값은 2000리엘에서 3000리엘 정도 지출한다. 부실하지만 "아껴야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2022.7) 40~50달러에 이르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쪽방 한 칸에 3-4명씩 생활하는 이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작은 예배공동체들이 곳곳에 필요하다.

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모든 여성들이 한 주간의 노동에서 벗어나 노래하고 춤추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롬15:4) 작은 예배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한다.

5. 유비쿼터스(ubiquitous)-손바닥 선교 시대의 도래

2022년 캄보디아 인구의 평균 연령은 26세이다. 통신규제청(TRC) 발표에 의하면, 전체 인구(1710만)보다 인터넷 사용(1760만)과 휴대폰 가입자(2000만)가 더 많고, 모바일폰 보급율은 전체 인구의 139%에 이른다. 페이스북 이용자는 978만명이고 18세~34세가 핵심이용계층이다. 유비쿼터스시대, 손바닥이 곧 복음의 땅끝이 됐다. 모바일폰 사용자의 97.7%(2022)가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며, 사회관계망(SNS)으로 정보를 소통한다. 충전용 전화요금 선불카드는 1달러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소액이지만 모바일뱅킹으로 결제한다.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로 각인되어 졌던 이제까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인 것이다. 복음에 대한 반응 또한 '자신들의 문화와 이해방식을 투사해서 받아들인다'.[40]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들은 뜨거운 날씨에 먼 길을 찾아가야 하는 지상교회보다 손바닥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다. 스마트폰 세대의 복음전파 플랫폼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1%대의 복음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전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굿뉴스 아시아' 같은 선행 사례가 있다.(www.goodnews.asia) 현재 아시아 7개국에 캄보디아 노동자 130만명(여성 52만 8천명)이 있고,[41] 이들의 소통수단은 스마트폰이다.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모바일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반응형웹으로 제작됐다. 2016년 3월부터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한국/미국/일본/중국/태국/라오스/캄보디아/탄자니아 등에서 복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간증이 사진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최근 6년 사이에 94개 콘텐츠의 누적 조회 수가 46만회를 넘어섰다(2016-2021). 1달 평균 76,600명이 방문한 것인데, 간증을 접하고 감동에 따라 영접기도를 함께할 수 있고, 이어서 사회관계망(SNS)으로 자신이 은혜 받은 간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쉬지 않고 1%대의 복음화율을 높이려는 모바일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선교사가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

40) 장완익, 인도차이나지역의 교회자립, 인도차이나한인선교사대회 신학분과, 2011, p.271-p273.

41) 아시아 7개국 송출 캄보디안 노동자는130만명이다(여성52만8천명). 태국122만, 한국4만5866 , 말레이시아2만3027, 일본1만1453, 싱가포르821, 홍콩202, 사우디아라비아43 (2022.03 기준) 이들이 년간 송금해오는 금액은 37억달러에 이르며, 한국교역액의 3.7배(10억달러)에 달한다. 해외노동자 송출은 훈센 정부의 주요 산업이고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A. 우선 시행 과제-"누가 할 것인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6:8)

1. 캄보디아 왕국 법률과 정책 전략 연구

캄보디아 왕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다원주의(pluralism)국가이고, 소승불교(95%)와 크메 르 민족주의에 이슬람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선교금지령이 내려져도, 이단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정부 기관들과 여러 모양으로 연대해도 그 이유를 추론할 뿐 원인 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 종교법과 노동법 등 헌법에 대한 이해와 국가경영전략(사각전략)[42]에 기반한 선교지 특성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캄보디아 선교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첫 걸음은, 캄보디아 왕국의 재해석으로부터 출발하자.

2. 복음전도와 자립선교 콘텐츠 공동개발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산업 4.0 시대의 캄보디아'(Cambodia in the era of Industry 4.0)를 발표했다.[43]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의 가난하고 취약한 가정의 젊은이 150만명에게 '직업 및 기술' 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2023.1). 지금 정부의 담당 부서는 150만명이 시차를 두고 훈련을 받더라도 같은 품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에 사용할 교재를 기획하고 제작 중이다. 복음의 콘텐츠 개발도 마찬가지다. '오직 예수' 동일한 컨셉으로 구원과 회심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도책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접촉점이 개발되어야 한다. 자립선교를 위한 아이템 역시 시대변화와 타겟에 맞게 개발되고, 콘텐츠도 제작되어야 한다.[44] 전문적인 은사들이 결집되어 공동으로 기획하고 생산하여 선교사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

42) 1994년 시장경제 채택과 외국인투자법 재정, 2004년은 캄장신(CPTI)이 개교하던 해, 캄보디아 최초의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의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RS)이 수립됐다. 이 전략은 5년 단위로 업그레이드되며, 모든 국가 기관은 사각전략을 지침으로 일한다. 2023년까지의 제4기 전략이 발표됐고, 모든 수교국 대사관에서는 가장 먼저 분석하여 본국에 보고하고 외교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참고로 사각전략은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경제학 교수의 '전략을 형성하는 5가지 경쟁력'에 기초하고 있다(The Five Competitive Forces That Shape Strategy).

43) Premier announces free vocational training for 1.5 million poor youths", Khmer Times, January 23, 2023,

44) 봉제공 여성을 대상으로 손바닥 크기로 만든 작은 전도책자 "지금 예수를 만나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ឥឡូវនេះ សូមជួបព្រះយេស៊ូវ ជីវិតរបស់អ្នកនឹងផ្លាស់ប្តូរ)와 "나는 예수를 만났다"(ខ្ញុំបានជួបព្រះយេស៊ូវ) 간증책자가 전도 대상을 세분화해서 만든 사례다. 길거리에서 가장 흔한 것이 똡까페(កាហ្វេ)로 불리는 커피부스다. 너무 많아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방치되어 있다. 고객지향성 (customer oriented)이란 마케팅의 중심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교회 청년들 자립과 복음전도용 부스로 쓰일 수가 있다.

3. 신학교 '크리스천 경제' 교육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막5:43),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눅9:13),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21:15) 선교지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이지만, 이제껏 후원에만 의존해왔기에 '실물 경제'(riel economy)에 어둡고 자급능력이 부족하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가 아니어도 교회 가 사라져 버린다. 다윗왕국의 12지파 군대 339,822명(대상12:24-37)의 전투식량과 군수 물자 는 잇사갈 지파의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대상12:32)이 담당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 조직되어 있고(딤후2:3-6), 곡식을 먼저 받는 농부가 필요를 공급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후(행9:3) 고향 '다소'에서(행9:30; 행11:25) 10년 이상을 제조업 장인 으로 준비되었기에 '이방인의 사도'(갈2:8)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급할 수 있었고(행18:3), "누구 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3:10) 권면할 수 있었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는 "선교에 있어서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 (The Mistake of Not Understanding Business in Mission and Mission in Business)을 서구 교회와 선교단체의 잘못으로 지적한바 있다.[45] 캄보디아 개척교회 미자립과 '빈곤'문제 해결 방안은 자력선교(행20:33-35)의 능력 배양과 크리스천'경제리더십'[46] 양성이 함께 따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들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 자는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He that teaches not his son a trade is as if he taught him to be a thief)는 유대인의 교육법 의미를 사역자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신학교지만 반드시 목회자 신학자만 양성할 것이 아니라 학부 출신들이 목사 은사가 없고 일반 사회로 나갈 경우 문화적 사명을 잘 수행하는 신자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경우 장학금은 목사 되는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므로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서 장학금을 갚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전호진 2013, 89).

---

45) Ralph D. Winter, "To the New ASM : Greetings from the West", Asian Society of Missiology, Bangkok Forum, 2007

46)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행17:17). 사도 바울은 회당과 장터라는, 주말 사역(weekend ministry)과 주중 사역(weekday ministry)이 모두 가능하도록 훈련되어졌다. 복음을 2배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것이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52만 5523개 소기업이 있고, 830만명이 일한다. 1개 기업 당 평균 15명 정도의 작은 규모이기에 창업도 쉬운 편이다. 신학교에서 크리스천 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제자훈련에서도 마찬가지다. 크리스천 경제를 바탕으로 직장 전도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이다. 복음화율 1%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회개척 뿐만 아니라 일터 개척도 중요하다.

4. 사역자 배출과 여성목사 안수

1993년 이후 세워진 신학교들을 통해 배출된 현지 목회자들은 1천여명. (감리교신학교 180명(23년), 캄보디아장로교신학교 350명(19년), 프놈펜신학교 200여명을 더하면 750명이고, 여기에 캄보디아성경학원(CBI), 웨스터민스터신학교, 라이프대학신학과, 바탐방신학교, 침례교신학교, 성결교신학교 졸업생 수를 더하면 1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47] 이와 별도로 30% 정도는 중도 탈락[48] 하는데 이들을 구제하여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교회지도자들의 여성 비율이 33%에 이르며,[49]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총리와 장관의 10%, 상원의원의 16%, 국회의원의 21%, 공무원의 41%가 여성이다(2021).[50] 이는 캄보디아 사회의 전통적인 여성지도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서로 끌어주는 여성들만의 연대감과 결속력의 반증이다. 선교사는 선교지의 종족적 유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외부자들이고, 제한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회적 네트워크 진입이 중요하기에 교회성장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하나님의 가교”(the bridges of God)라고 했다(1955).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중심으로 가정과 권리가 승계되는 캄보디아 모계 전통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여성목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학 교육을 받은 여성 사역자 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배출되어야 한다. 캄보디아는 “복음의 중심에 여성이 있다”

Ⅲ. 결론

1. 사회변혁을 못 따라가고 있다-1%와 7%의 차이

1970년대 킬링필드의 캄보디아는 2019년까지 20여 년간 7%대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세계 은행(WB) 평가에 따르면, “Olympian of Growth”(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47) Ibid (표명대 2022, p.1)

48) 장완익, 인도차이나연구-멕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선교사역과 멕도 사역백서, 제4호, GMS 메콩개발기구, 2020, p.90-p.91

49) Ibid (김조동 외 8인, 2013, p.155)

50) 2020년 캄보디아 여성 국가협의회 보고서(Cambodian National Council for Women’s 2020 report)

이룩 했다는 의미)로 불릴 만큼 급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율이 잠시 떨어졌으나(-3.1%), 2021년에는 경제 성장의 신 동력으로 '2021-2035 캄보디아 디지털 사회· 경제 정책 프레임워크'가 발표된다. 2022년에는 인터넷 교육으로 9학년 과정을 인증 받는 BEEP (Basic Education Equivalency Program) 제도가 시작되고(UNESCO지원, 교육부와 노동부 공동 주관), 2023년 1월에는 '산업 4.0 시대의 캄보디아'(Cambodia in the era of Industry 4.0) 플랜이 전개된다. 여기에 필요한 150만명의 인력은 빈곤가정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무료 직업훈련으로 충당한다. 국가의 방향과 목표와 전략과 타겟이 분명하고 변화의 속도가 엄청 나다.[51]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회 변혁에 반응하지 못한 복음화율은 1%대에 머물러 있다.

2. 값 비싼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모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포장된 복음을 소개함으로 선교지 사람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한다(Unnecessary Yoke).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로 부터 도입되어진 이러한 교회구조들은 고비용이며, 반드시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52] (Jean Johnson 2012). 농촌의 예배인도자가 없는 어린이 예배와 도시의 20대 여성노동자를 위한 열린 예배 형식 개발, 더불어 불교 사원과 이슬람 모스크처럼 종교적 특징이 시각적으로 차별화되는 '싯딤나무 조각목과 순금의 언약궤'(출25:10-22)와 같은 예배당[53] 디자인이 연구되어야 한다.

---

51) 캄보디아 정부의 변화와 시대를 돌파하는 전략이 특별하다. 10년 전~20년 전 알고 있던 캄보디아가 아니다, 2023년 1월, 훈센 총리의 언론 발표문에 150만 빈민계층 청소년을 가르칠 무상 기술교육과 관련하여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의 통합'(Integration of informal and formal economies)이란 문장이 등장한다. 아마도 이것은 총리의 장남이며 차기 총리 내정자인 훈마넷(46) 장군이 미국 육군사관학교(1995-1999) 재학시절부터 '경제'를 복수 전공했고, 뉴욕대 석사(2005)와 영국 브리스톨대 경제학박사(2008) 를 취득한 '경제전문가'인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아시아 여러 나라가 채무불이행(default)의 국가부도가 났고, 캄보디아와 함께 아시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공산국가 라오스도 국가부도가 났다(2022). 더욱 그렇기에 '앙코르와트'와 저임금의 노동집약형 봉제 산업 외에는 특별한 성장 자원이 없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 개발과 이를 수행할 '인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시책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복음전파와 교회개척과 제자양육과 구제사역 등 모든 선교 활동에서 이런 시대 상황을 직시하며 상대적으로 빈곤해질 '영적 부요'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2) Ibid (장완익 2022, p.53-p55), 진 존슨(Jean Johnson)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16년(1992~2009) 사역 후 현재 미국(2010~)에서 '재현 가능한 성경적 모델'의 선교훈련 '파이브스톤즈 글로벌'(www.fivestonesglobal.org) 대표디렉터로 14년째 사역 중이다.

53) "아시아 신학은 '상황화'관점에서 출발한다" 동남아시아 크메르 문명권의 특징을 성경적 시각언어로 표현한다. 성경적 모티브는 '싯딤나무 조각목과 순금의 언약궤'(출25:10~22)이다. 언약궤는 목재로써는 가치가 없는 (마치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인생과 같은) 조각목들을 이어 붙이고, 안과 밖을 황금으로 마감했다. 성경 속에서 '금'은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창2:11-12)처럼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불변의 진리'와 '믿음'을 상징한다. 동남아시아권 불상의 황금색도 같은 의미를 뜻한다.

3. 제언

1) 전략에 전략을 더(+)하라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잠24:6) 전략이란 무엇인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Aubrea Malphurs 2005, 167).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는 오직 그분의 일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뜻 가운데서 계획을 개발 하고 행하기를 원하신다"(Basil Clutterbuck 1957, 30).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능 하시지만 우리의 계획을 통해 역사 하신다." 1%대의 낮은 복음화율 곳곳에 틈새(niche)들이 보인다. 위기를 기회로, 한인 선교 30주년, 복음화 1%대 현실을 직시하며 다음 30년을 '전략' 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당신의 전략에는 전략이 필요하다"(Your Strategy Needs a Strategy)[54]
"당신의 전략에 전략을 더하십시오"(Your Strategy Plus a Strategy)

2) 집단지성(group intelligence)의 '우리-Uli' 시스템 구축

1%대의 위기감과 '1%'에 집중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위키피디아'(Wikipedia) 방식으로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지식 생산과 공유'의 거대한 창고 '위키피디아'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검색 가능한 단어가 31개에 불과했다(2001). 현재 한인선교 30년 역사에 8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서로의 지식을 연대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던 사도 바울도 "우리 복음"(살전1:5), "우리 편지"(살후 2:15)로 표현할 만큼 동역자 들과 "우리"로 사역했다.[55] 랄프 윈터(Ralph D. Winter) 박사는 "선교역사상 가장 큰

54) J.마크테리 외, "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전략 총론" 엄주연 옮김, 세계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p.32-p.33, "올바른 전략은 각각의 수많은 공동체에 적합하게 선교를 맞추는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교회성장에 적합한 "하나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올바른 전략은 분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현대 선교는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뿐 아니라 오늘날의 선교가 직면하고 있는 혼란과 좌절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과거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도널드 맥가브란 (Donald McGavran)

55) 이미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막6:6), 그후에도 따로 칠십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눅10:1). 바울은 실루아노(실라), 디모데와 함께 했고(행18:5, 고후1:19, 벧전5:12, 살전1:1, 살후1:1), 동역자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와 배려는 "우리 복음"(살전1:5), "우리 편지"(살후 2:15)로 잘 나타난다. 무엇이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이다. 데살로니가서에는 바울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나"는 단 한번씩 언급되지만(살전 5:27, 살후3:17), "우리"는 110회에 이른다(살전 75회, 살후 35회). 바울은 텐트메이커로 업의 특징은 제조업이다. 여러 분야 전문인과 부품이 모여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현 시대의 경영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더 큰 목표를 이루고자,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벤치마킹(benchmarking), 아웃소싱(outsourcing), 상생경영(win-win partnership) 등 경영혁신(innovation) 기법이 자주 사용된다. 즉 상호의존의 협업이 기본인 것이다.

실수는 토착 교회는 세웠지만 '선교하는 토착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혼자가 아니라 협업을 통한 창조성과 집단지성으로 '복음의 총체성'(Holistic Approach)을 이룬다. 이를 위한 실행 안으로 한인선교사회에 '전략위원회'를 두고 싱크탱크 역할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우리' 시스템(uli-system) 구축을 제안한다. '선교의 종합상황실'이 시급하다.

3) 캄보디아 복음화율 측정지수 개발

현재, 복음화율은 교회개척 수와 성도 수를 전체 인구 수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지상교회가 사라지면 '구원받은 성도'들도 집계에서 사라져 버리므로 매년 증가하는 인구 숫자에 비례하면 복음화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훈센 총리는 2022년 4월 1일 이슬람교의 라마단 축일을 축하하며, "불교도는 95%, 이슬람교는 2%, 기독교는 0.25%"라고 말한 바 있다.[56] 불확실한 자료는 선교사의 전략 수립과 선교단체가 오판을 하게 되며, 캄보디아 종교부의 정책 결정과 국가 리더십의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15년동안 진행되어온 MK 2021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개량된 복음화율 측정지수가 필요 하다. 세계은행의 국제빈곤선 (World Bank-International Poverty Line) 2.15달러 산출 방식,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국가별 부패지수 측정방식, 미국 조지타운 대 레이 클라인(Ray Cline) 교수의 '국력평가방정식' (Ray Cline's 'Formula For Measuring National Power'), 캄보디아 국가경영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RS) 방식을 복음화율 측정지수 개발에 참고할 수 있다.[57]

---

56) Hun Sen extends congratulations to Muslim community in conjunction with Ramadan, Khmer Times, April 1, 2022. "Buddhism is the state religion of Cambodia, but the country fully respects the religious freedom. 95 percent of the population of about 15 million are Buddhists. Islam has about 300,000 followers, and some 0.25 percent of Cambodian people follow Christianity, animism and so on."

57) 캄보디아 복음화율 지표 개발을 위한 참고 모델 : 국력평가방정식 Pp=(C+E+M)×(S+W), 국력(power)은 인구와 영토(critical mass) +경제력(economic capability) +군사력(military capability)의 유형자산(hard power)을 더하기(+)한다. 이어서 전략(strategic purpose) +의지(will to pursue national strategy)의 무형자산(soft power)을 더하기(+)한 다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을 곱해서(×) 산출한다. 여기서 물질적 조건인 영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을 더한 수치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100), 정신적 조건인 전략과 의지가 제로(0)라면 국력은 결국 제로(0)가 된다. 그만큼 전략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선교에서도 '전략'과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력평가방정식은 1980년대 미 중앙정보부(CIA) 부국장을 역임한 조지타운대 레이 클라인(Ray Cline) 교수가 개발했다)

맺는 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1996년 힐러리 클린턴(Hillary Diane Rodham Clinton)의 저서 ‘It Takes a Village’가 출간됐다. 자녀교육과 가족의 중요성을 설파한 이 책 제호와 서문에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당시 백악관 퍼스트레이디였지만, 외동딸을 키운 엄마로서 경험과 고충을 이렇게 아프리카 속담을 빌려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캄보디아도 그렇다. 한인선교 30주년을 기회로 살펴본 ‘1%대의 복음화율’은 마치 간난 신생아 같이 연약하다. 뿐만 아니라 ‘1% 아래로 떨어지는 미숙아’가 될 여지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듯이, 1%대의 복음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인선교사 모두의 ‘한 마디’가 필요하고, 더디게 가더라도 함께 가야한다.[58)]

부족한데로 1차 시도한 분석과 제안들에 대한, 동료 선교사들의 이어지는 논의와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또한 부탁을 드린다.

58) 2008년,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Al Gore)에 의해 유명해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If you want to go quickly,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이것 역시 아프리카 속담으로 “청년 혼자서는 빨리 달리고, 노인과 함께라면 천천히 가지만, 청년과 노인이 함께 가면 멀리 간다”(A young man runs fast alone, and goes slowly with an old man, but a young man and an old man go far together)는 루오(Luo)족 민담에서 출발했다. 캄보디아 또한 복음화율 1%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청년(열정)과 노인(지혜)’의 만남 그리고 ‘함께, 멀리’ 가는 상호의존의 연합사역이 절실하다.

참고목록

김조동 외 8인, 캄보디아 선교역사, 주캄한인선교사회 선교연구분과, 도서출판 첨탑, 2013, p.182, p.153-p.157
김종식, 캄보디아도 국가경영의 전략이 있다(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미발표 자료, 2019
김종식, 캄보디아 자립선교 '틈새'(Niche)전략 공유 세미나, 프놈펜 선린교회, 2022, p.7-p13
김창훈,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지도력 이양에 관한 연구, (Ph.D, 풀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2014), p.12-p.13
서병도, 캄장공 선교백서, 캄보디아장로교공의회(CPCC), 2013, p.89
이승연 • 강승삼,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 선교포럼, Salt & Light Publisher, 2013, p.10-p.14
이증재, 2020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요람, KMAC, 2022, p.31-p.143
안희열, 캄보디아의 교회개척운동(CPM)에 관한 평가와 전략적 제안, Mission Magazine, 2011, p. 12
장세훈, '현 단계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통권 제66호, 2005, p.95-p.125
장완익, 인도차이나지역의 교회자립, 인도차이나한인선교사대회 신학분과, 2011, p.271-p273.
장완익, 인도차이나연구-멕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선교사역과 멕도 사역백서, 제4호, GMS, 2020, p.90-p.91
장완익, 캄보디아 개신교회 자립정책 연구, ICCHI 캄보디아교회사연구원, 2022, p.28
전석재, 미래세대를 향한 전도방향과 전략, 서울신학대학교, 한국기독교학회, 2015, p.127
표명대, 캄보디아 신학교육의 현황과 진단 그리고 미래과제들, 한인선교 30주년 포럼, 프놈펜, 목양교회, 2022, p.3
J.마크테리 외, "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전략 총론" 엄주연 옮김, 세계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p.32-p.33
Don Cormack, Killing Fields Living Fields, 최태희 옮김, OMF Rodem Books, 2010
Ken Eldred, spiritual capital, https://www.missionfrontiers.org/pdfs/33-4-spiritual-capital.pdf,
Sherwood G. Lingenfelter, Transforming Culture, 2nd ed, (Grand Rapids : Baker, 1998), 1.
개종권유금지령 1932, http://www.cambodianchristian.com/article/?p=273
기독일보 : 캄보디아 기독교 선교 금지, 2007.07.17
굿뉴스 아시아 www.goodnews.asia
스티브 하이드(Steve Hyde), 캄보디아 교회지도자 168명 개별인터뷰, 'Portrait of the Body of Christ in Cambodia', Asia for Jesus, 2011
아시아기자협회, '캄보디아, 기독교 선교행위 전면금지', 2007.07.17
온누리교회, 맞춤전도집회 5단계 전략, 전도학교, 2006
정치적 시위에 참여하는 승려 제한 지침, 종교부(MCR),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미 국무부 • 국제종교자유국) 2021
제7차 종교 간 대화를 위한 워크숍, 2018,12,06, 프놈펜, https://www.information.gov.kh/articles/7411
캄보디아 통계 https://ko.zhujiworld.com/kh/, (검색일 2023.02.07)
캄보디아 가구 수 통계 https://ko.zhujiworld.com/kh/ (검색일 2023.02.07)
캄보디아복음주의연합회(EFC), Cambodian Churches Presentation, MK 2021 (2012)
캄보디아여성 국가협의회 보고서 2020 (Cambodian National Council for Women's 2020 report)
한국선교연구원(kriM),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 선교포럼, 2013, 파발마 865호
2017 기독교지도자모임, 훈센 총리 연설문(2017.05.27). https://pressocm.gov.kh/en/archives/5913
2017 기독교지도자모임, 프놈펜 꺼삑 4000명 모임(2017.06.12). https://news-kh.churchofjesuschrist.org/article/cambodian-prime-minister-his-excellency-hun-sen-recognizes-christians
2018 기독교지도자모임 및 만찬(2018.05.05). https://pressocm.gov.kh/en/archives/30250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미 국무부 • 국제종교자유국) 2021, 12. https://www.ilo.org
2023 캄보디아 기독교 선교100주년 연설(2023.01.27). https://m.en.freshnewsasia.com/index.php/en/localnews/34382-2023-01-27-03-33-14.html
MK 2021캄보디아 교회사이트 cambodiachurches.org
Ralph D. Winter, "To the New ASM : Greetings from the West", Asian Society of Missiology, Bangkok Forum, 2007

"Cambodia Evangelicalization Rate: Cause and Breakthrough Strategy"

Kim Jong-Sik (GMP Cambodia)

Ⅰ. Introduction

Cambodia's evangelization rate index is noticeably alarming. Starting with the "One Village One Church" pioneering movement of "Mission Kampuchea 2021" (MK 2021), the evangelization rate rose from 0.90% in 2009 to 1.30% in 2012. However, it fell to 1.19% in 2013 and fell further to 1.16% in 2017.[1] Over the past five years, 608 churches have disappeared and 867 have been newly pioneered,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churches to 3,194, but the COVID-19 pandemic which began in January 2020, has caused many churches to disappear.

In 2022, the Religious Act was revised, and no worship permit is issued to foreign missionaries. A barrier has been created that will inevitably lower the evangelization rate. 2023 is the year of 100th anniversary of the Protestant mission and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mission. With this opportunity, we will examine the problem of the lowered evangelion rate through previous studies to find threats and opportunity factors and open a gap in the 1% range.

Ⅱ. Body

A. Approach From Four Perspectives to Find Opportunities to Break Through the 1% Range

1. Perspective of Social Indicator

Dr. Ralph D. Winter, who has led the flow of modern missionary work, pointed out "The Mistake of An Evangelism That Is Not Validated And Empowered by Social Transformation" as a problem for Western churches and missionary groups.[2] It conveys to Asian missionaries the experience of a Western missionary who devoted his life to missionary work until he was called by God at the age of 84. Social indicators based on social statistics are used to examine the social transformation phenomena of mission sites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spectra, away from the limitations and perspectives of Me-ism.

2. Perspective of Contextualization

Evangelical missionary theologian Bruce Nicholls said, "Missionaries often tend to ignore or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a culture when delivering God's word. He points out that missionaries were vulnerable to situationalization, saying, "They are often not sensitive to the customs, thought patterns, value systems, worldviews, and lifestyles of those who receive the Word." Excessive situationalization has the risk of temptation and syncretism centered on humans, not God. Be wary of this, but it is necessary to "situationalize the unchanging content of the gospel of God's kingdom into a specific culture and a meaningful form appropriate for the situation of the lives of those living in that culture."[3)]

3. Perspective of Indigenization

The John L. Nevius principle of self-governing, self-supporting, and self-propagation is a "native church mission theory" borrowed from Henry Venn, a missionary theorist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Rufus Anderson, an American congregation. Strategically, the goal is to develop the independent power of the missionary church to become independent, and if it grows, the missionary will withdraw as soon as possible. Paul Hiebert's self-theologizing is also based on indigenization. It was implemented by Nevius in China in 1885 and attempted as a church independence policy by the C&MA in 1932, when King Sisowath Monivong's Prohibition of Conversion4) was issued in Cambodia (Hammond 1932, 28). Subsequently, it was retried in 1955, [5)] Then and now, 'Jesus Christ, who came down as a human being, is the basis for all ministry and indigenization. Let's look at it again from this point of view.

4. Perspective of Emic and Etic View

Inside means looking inside. The dictionary meaning of insight refers to the ability to see through objects with keen observation or to see a particular object from a perspective other than a universal perspective, which may mean that it starts with looking inside yourself first. Missionaries also affirm that the message of the gospel cannot be effectively conveyed without this "insider perspective" (Hiebert 1985, 94-97). In addition, in order to see the whole mission task, an equally important weight lies in the "external perspective" (Harris and Johnson 2003, 18-20). This is sometimes likened

to a "microscope and telescope," and we look at the factors influencing Cambodian missionary work from two perspectives, internal and external.

B. Cambodian Missionary - 13 Conflict Factors and the Role of Korean Missionaries

1. 75% of Korean Missionaries, Central Ministry in Phnom Penh and the Metropolitan Area

As of November 2022, the number of missionaries who joined the Korean Missionary Society in Cambodia is 450 units out of 834 people. A total of 75% of the ministry and resources (395 units) are concentrated in the gateway city of Phnom Penh,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hubs of some provinces.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unit is 1.8 (children not included), and two or more types of ministry are performed. There are 105 types of ministry in 28 categories, and 60% of missionaries conduct church development and apprenticeship training. Subsequently, children's services (including kindergarten services) and education services are the mainstream (including elementary, middle, high, university, and seminar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fessors, and teacher services)[6].

According to the Korea World Missionary Council (KWMA) announcement in January 2013, there are 24,742 Korean missionaries in 169 countries. Cambodia, with 560 people dispatched, is the ninth largest among the top 10 dispatched countries. In 2021, the number exceeded 800, which is the seventh in the total number of dispatches. Including missionaries working as independents as of 2022, it is expected to be about 1,500, about twice as many, and measures for overall communication are found, and implications for diversification of ministry areas and human resource distribution are required.

2. The Shackles of the 'Three Laws' that were Overlooked - Constitution, Religious Law, and Labor Law.

We look at Cambodian Missionary in terms of Dr. Ralph Winter's 'social transformation'. Social transformation is an innovative change in the social system to solve the social crisis caused by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society, and there are reformist and revolutionary aspects. Cambodia's constitution stipulates an innovative change in the national structure from Killing Field to Living Field.)[7]

1) Constitutional Form of State8)

Article 4: The motto of the Kingdom of Cambodia is "State, Religion, King".

Article 7: The King is inviolable (1993).

Article 51: Kingdom of Cambodia adopts liberal democracy and pluralist policies (as amended in March 1999).

Article 56: The Kingdom of Cambodia adopts a market economy system. The preparation and process of this economic system is prescribed by law. (Financial of the Foreign Investment Act in 1994, Financial of the Labor Act in 1997, Introduc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 $40 in the first yea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in 2004).

2) Freedom of Faith

Article 43: Regardless of gender, Khmer citizens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faith. Freedom of faith and religious worship is guaranteed by the state. Such freedom is a condition that does not affect other beliefs and religions or violate public order and rights. Buddhism is the religion of the state.

3) Relation with Buddhism

Article 43 of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Buddhism is the state religion and that the government encourages it through observance of Buddhist holidays, religious training, Buddhist education in public schools, and financial support for Buddhist institutions. This law provides freedom of personal belief and religious worship as long as it does not interfere with other people's beliefs and religions and violates public order and safety. However, the law prohibits and punishes acts that fall under "infringement on state religion" such as the act of damaging Buddhist temples, spirits, and "insult" against monks. This law prohibits non-Buddhist organizations from publicly converting and stipulates that non-Buddhist literature (the Bible) can only be distributed within religious institutions. The law also prohibits providing money or materials to persuade people to convert.

4) Religious Activities and Church Development

The Constitution protects religious activities that are properly implemented. All religious organizations, including Buddhist organizations, must register with the Ministry of Religion (MCR) to carry out religious activities, inform the government of their goals, explain their activities and sources of funds, and confirm their commitment not to insult other religions as part of religious propagation. All religious organizations must be at least 4.8 km (1.2 miles) away from each other and register with the Ministry of Religion if they intend to build a chapel or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Authorities may temporarily close unregistered places of worship and religious schools until they are registered.

5) Religious Pluralism - Conflict with Christianity

Article 51: The Kingdom of Cambodia adopts liberal democracy and pluralist policies (amended in March 1999).[9] The common thing about pluralism is that there are not only one, but many. As a kind of 'many-ism', there are various forms such as epistemological pluralism, ethical pluralism, social pluralism, and aesthetic pluralism depending on the field. The Cambodian Constitution embraces religious pluralism, which recognizes the truth and value of other religions besides the state religion of Buddhism. In other words, religion and salvation are not one way, so it is impossible to coexist with Christianity of monotheism, and therefore even heresy can be active.

On July 17, 2007, the Cambodian government officially announced a ban on Christian missionary work approved on June 26, saying, "We will allow Christian gatherings and activities, but we will not allow Christians to hold public gatherings, visit individual visits and say 'Christ will come again' because of it divides society". In response a Cambodia pastor from EFC said "we will abide by this order and will not do anything against the government".[10] In this way, if the gospel preaching "rescue Jesus, the only God" or "Christ will come again," he will be punished for violating the Constitution's pluralist policy and the "positive law" that divides the pluralist society. Therefore, local pastors and organizations will follow government orders and laws for external activities.

6) The State Leader's View of Governance

From 2016 to 2018, at the request of Prime Minister Hun Sen, "meeting Cambodian Christian leaders and pastors" continued. At the annual gathering of 3,000 to 4,000 people, the prime minister's key message is "religious harmony." This is based on Article 43 of the Constitution, but as the events continue, it emphasizes that religious freedom has been won from the Khmer Rouge "Pol Pot" and uses it as a means of governance.[11] Hun Sen said Khmer Rouge's last army surrendered, "For the first time in Cambodian history in 1998 it became a unified state, a constitution, a king, a royal government, and an army." "All religions surviv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ambodian People's Party (CPP), "We Christians can continue to exist, whether we are local or foreign," and "I don't care what religion." “I am calling on all Christians no matter what religious sect they belong to have solidarity among themselves and from one religion to another.” Especially in January 2023, Ethnic and religious divisions are a major disaster and are not allowed in the Kingdom of Cambodia.[12] All Christian leaders must work together in un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harmony, we should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religion other than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13] he said.

7) The Ministry's Perception on Christianity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EFC in 2017, there are 3,194 churches belonging to six Cambodian denominations and 172,987 members. However, Minister of Religion Khan Sophirom told the '7th Inter-Religious Dialogue' workshop in Phnom Penh in December 2018 that "there are 479 Protestant churches, 295 religious schools, and 89,000 Christians, while Islam has 335 mosques and 177 religious schools, 482,863 Muslims. There are 4,466 Buddhist temples across the country, 56,301 monks, and 587 Buddhist schools (549 elementary/24 middle/12 high/ 2 university).[14)]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Religion data in January 2019, there were a total of 300,000 Christians in the 19 ecumenical and ecumenical organizations, of whom 20,000 were Roman Catholics. About 2% of Cambodia's population is Christian and 2.5% is Muslim. If this is recalculated with a population of 16.2 million at the time, there are about 275,000 Protestants (1.7%) and 405,000 Muslims (2.5%) among Christians. It differs from the numbers announced at the 2017 EFC data and the 2018 Inter-Religious Dialogue workshop, indicating that various types of materials are mixed in the Ministry of Religion.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e religious ministry's perception of Christianity. Only a few of the 3,194 pioneered churches were registered (479 churches, 89,000), while the total number of Muslims (335 mosques, 482,863) was considered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Religion, with a gap of more than five times in the number of saints. As a result, Christianity is recognized as a "minority religion" rather than Islam.

8) Islamic Preferentialism

Since 2014, Cambodian Prime Minister Hun Sen has organized and presided over Ramadan Iftar dinners for the Muslim community (Phnom Penh Koh Pich Convention Centre).15) In recent years, although it has been temporarily suspended due to the COVID-19 outbreak, it has sought understanding by sending congratulatory messages to members of Muslim communities in Cambodia and around the world on April 1, 2022 (Prime Minister's Facebook on March 31).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Cambodian Muslim community is also growing day by day as the 57-nation Islamic Cooperation Organization (OIC) approaches the economic power of Muslim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Global Islamic Fund (Halal fund), to expand their investment base for post-pandemic economic recovery. The central government's labor minister is the chairman of the Cambodian Muslim Development Foundation (CMDF), which raises funds from Islamic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build mosques and Quran schools, while the social minister is the chairman of the Cambodian Muslim Community Development (CMCD). Subsequently, Muslims were appointed as high-ranking vice

governor-level officials to six states, which are Muslim collective residences along the Mekong River.

Prime Minister Hun Sen is believ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completion ceremony of the Malaysian-funded mosque in Kampong Cham (2010) and the Phnom Penh Mosque (2015), sponsored by a businessman from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influenced the period of issuance of the religious ministry's service permit (2 years of Christianity, 10 years of Islam). In addition, it provided two four-story buildings in Phnom Penh for use as 24 classrooms for Islamic education with the Cambodian Muslim Community Steering Committee (2017) and sponsored 50 million riel (about $12,500) as a mosque development fund. Prime Minister Hun Sen and the Cambodian government's Islamic preferential treatment continues, allowing Muslim women to wear hijab16) and promising political consideration for social advancement.

9) Khmer Nationalism

Article 68: The State provides fre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o all citizens. The people must be educated for more than nine years.

Article 69: The State preserves and promotes national culture. The state should protect and promote Khmer as needed.

As of 2021, the average level of education for Cambodians is 5.1 years. It falls short of free education up to 9 year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rticle 68 of the Constitution) and is far from the average education period expectation of 11.5 years (third year of high school). As of 2022, among students under the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y cannot read their native Khmer language properly (36.3%) and cannot write (53.9%). The arithmetic ability is worse (74.3%). With the quality of Cambodian public education low, a special order was issued by General Hun Manet, the next prime minister nominee and deputy commander of the Cambodian Royal Army (RCAF) (2023.2). All international schools in Cambodia,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r Canada, based on English education, should teach Khmer and Cambodian ethics and traditional culture until the 12th grade.[17)]

General Hun Manet, 46, is a graduate of the U.S. Military Academy (1995-1999) and a Master of Economics from New York University (2005) and a Doctor of Economics from Bristol University (2008). This is where you can guess how he will lead Cambodia as the next prime minister, who is

both a soldier and an economist with an international sense. Currently, there are students who do not know Khmer at Cambodia International School. Children who learn from native English teachers and pay very high tuition are children of rich and influential families. Children are Cambodia's future and will stand out in various fields. Nevertheless, it can be very dangerous to be a leader who does not understand the Khmer people's souls. The next Prime Minister Hun Manet's nationalism toward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is strongly felt, which will lead the people who are Asia's poorest country but have not even properly educated in free public schools. His perspective and leadership will be reflected in religious policy.

10) An Ever-enforcing Religious Law

Since 1923 when the C&MA missionaries Arthur L. Hammond and David W. Ellison were missionaries to Cambodia, several missions have been banned. Prohibition against conversion in 1932, expulsion of all missionaries during the Vietnam War in 1965, prohibition of evangelism for conversion purposes in 1999, and prohibition of conversion or religious propaganda in January 2003. In June 2007, it publicly recalled the prohibition of home visits and the provision of food and other supporting goods, and in July 2007, it officially banned missionary as it 'divides society'.[18)]

The revised religious law, which will take effect from 2023, the 100th anniversary of Christian mission, replaced the provisions previously available in the name of foreign missionaries with locals, saying, "The list of 50 church members, thumbprints, and church sites must be in the name of the church. The representative of the church must be Cambodian".[19)] After that, if all churches are investigated and applied retroactively, the influence of missionaries will be further reduced, and the ministry will be reduced.

11) Criminal Punishment for Religious People

In December 2021, the Cambodian government has issued guidelines to restrict participation in rallies and demonstration regarding monk's social activities and as well as political protests, including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In this regard, it collected opinions from senior Buddhists, established new provisions to arrest and punish monks, and designated them as "religious people" instead of monks. As a result, new legal provisions can also be applied to Christian leaders and others, and criminal punishment, including imprisonment of up to 15 years, is possible.[20)]

12) Additional Sanctions Provisions

Article 41: Khmer citizens have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information, freedom of publication and freedom of assembly. No one can exercise the following rights. Acts that violate the honor of others or affect the good customs of society,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The media system is prescribed by law.

In early August 2022, more than 15,000 people gathered at Khem Veasna's World End Rally near Phnom Kulen (Siem Riep Mountain Range) to survive the world's "Great Flood."[21] 500 overseas migrant workers left the dispatch country from August 23 to 25 and joined the "Last Supper of Farms" (400 in Korea and 100 in Japan) due to rumors on his self-proclaimed "Prophecy of Destruction" in Telegram and Facebook. On October 6, Khem Veasna's prediction of the end of the war fell through, but more than 1,500 people remained on his farm, and Hun Sen apologized to employers in Korea and Japan for fear of the quality of overseas dispatched workers who violated labor contracts and the deterioration of trust in the sending countries. With this opportunity, Christian rallies such as 'past precedent'[22] will be subject to legal sanctions.

13) Missionary Work Permit and Ministry Workers' Union

Article 36: Regardless of gender, Khmer citizens have the right to form trade unions and become members.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trade unions are prescribed by law.

Foreigners who have received an "E" visa necessary for long-term stay in Cambodia must have a work permit. Under Articles 261, 264, 265 of the Cambodian Labor Act and Act No. 196 (August 20, 2014), work permits are also issued to missionaries of churches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Religion (1 year). Therefore, missionaries and local ministers can have labor disputes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and are subject to labor law. Like the sewing industry, church ministers can form and join labor unions, and when this stage is reached, the monthly ministry fee will be paid, so a certain amount should be raised every year. In addition to medical insurance (the rule is to share 50% each, but the operator pays 100% in the sewing industry) and bonuses, retirement benefits will have to be accumulated, so it will be difficult to work only with donations from churches that do not even stand on their own feet.

C. Nevius' 'Self-Reliance' - 100 Years of Assignments, 100 Years of Inheritance

1. Results of the Ministry's Financial Support

1) Case 1: C&MA's Self-Church Policy in 1932 and 1955

The three-way policy established by Henry Benn of the United Kingdom and Rufus Anderson of the United States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missionary strategies of all missionary institutions at that time (Beaver 1992, 67). The C&MA also accepted this and announc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Cambodian Christians in 1932 that local ministry officials could no longer receive salaries from the missionary community. Due to this influence, some ministers quit their jobs and left, and only a few remained to continue their ministry (Hammond 1932, 28). Since then, in 1955, the C&MA Missionary Society once again stopped subsidizing all the honorariums given to pastors, which led some pastors to resign from the church and find common jobs in general.[23] "In the decade of 1923-1932, the C&MA pioneered 16 independent churches, 4 Outstations from above churches, 8 missionary churches, 304 members and 1 Bible school."[24]

2) Case 2: The Cost of Living for Lay Ministry Workers in the Church Development Movement (CPM)

In 1993, the first Korean missionary entered Cambodia. Politically, a constitutional monarchy coalition government was formed under the Paris Peace Agreement, and general elections were held under U.N. supervision. Introduced by David Garrison of the U.S. 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 the New Church Development Movement (CPM) was centered around rural place of Battambang. CPM, which fosters unpaid lay lead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establishes cell-type home churches of about 15 people, has achieved the result of pioneering up to 200 churches in 10 years. This was considered the most successful model of church development, but the number of churches decreased to 50 in two years (2004-2006) when it was transferred to a local denomination and donations from $20 to $30 a month to lay leaders were cut off.[25] In Cambodia, labor laws were enacted in 1997 and the minimum wage was $40; by 2005, it was $45; by 2007, respectively. It compares with $20 to $30 supported by the leaders of the lay church at that time.[26]

3) Case 3: Rural Church Leader - "Poverty" is Scarier than "Persecution"

According to data from Steve Hyde in 2011, out of 14,073 villages at the time, 2,050 churches were pioneered (14.5%). Sixty percent of church leaders work in agriculture, and only 12 percent of full-time workers. The educational background was elementary school dropout or graduates (71%), and full-time teachers were at the level of 8th grad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church leaders was $43.12, less than the minimum wage of $61. The standard of living is

poor (46%), including 'very poor' (12%), and about half is normal (53%). The biggest problem with religious life is "poverty" (74%) more than persecutions (49%) around them. Because of lack of faith (1%) or lack of learning (18%), they are "busier to make ends meet" (25%) and cannot live a life of faith.[27] In 2011, the World Bank's World Bank-International Poverty Line was $1.90, but the level per family of rural church leaders was $1.44, which was the lowest living.

2. Nevius' 'Self-Church' - Change of Ideas is Required.

1) The Church is Disppearing

According to Steve Hyde, "89% of Cambodian Protestant buildings are built with foreign financial support, 50% of churches are stagnated or closed, and only the remaining 50% are maintained (2011)."[28] As a result of the EFC's 'One Village One Church' pioneering movement, 54% of pioneering churches have buildings, and 46% are home churches, cell churches, or ministry centers without buildings (2017).[29] The common thing is that the problem of "poverty" is serious, and if the support of missionaries and missionary groups is cut off, the church will be closed. There are two types of poverty at the root. "absolute poverty is directly related to survival, and immediate relief should be prioritized, but relative poverty" means a state in which one does not enjoy an average level of living and needs improvement through education.[30] Nevius' attempts at "independence" have continued throughout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ary work, but if nothing has changed as it is now, the problem should be view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Now, we should focus our capabilities on eliminating the root causes of poverty, not on poverty relief.

2) Spiritual Capital Construction

In the 1990s, Cambodia built its national infrastructure with continued international aid from the United Nations. Construction of roads, ports, and industrial complexes, but side effects are also great. Good intentions have become toxic relief, and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Cambodia's corruption index ranks 160th among 180 countries in the world (2022). The corruption index is so high because "social capital" has been establish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inance, manpower, and institutions, but "spiritual capital" that operates it is not formed. Spiritual capital is accumulated when it is formed based on faith, not law or institution, with values such as credit, honesty, love, service, and sincerity.[31] This is also the true donation. Only then can the mission objective be achieved, which contributes to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work and faith,

the spread of the gospel, and substantial changes in the state and people. Sociologist Peter L. Berger said, "Spiritual capital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doctrines and teachings to social transformation and influence," and "independence" of Nevius, whose indigenous members are responsible for the cost of living and running the church, is also achieved through this process.

3) Education to Break Away from Financial Literacy

Cambodian women change money earned into gold and dress up for their own pleasure. They range from gold rings, gold necklaces, gold bracelets, gold earrings to ankle necklaces. It is too much for a missionary to see, but it acts as a "key-current" that is always used as cash. During the civil war in the 1970s, the only thing that could save lives was "gold" across the body, and even now banks are anxious and know nothing about finance. Alan Greenspan, chairman of the U.S. Federal Reserve's board of directors, who issues the "key currency" dollar that drives the global economy, said, "Literacy makes life uncomfortable, but "financial illiteracy" is scarier than illiteracy because it makes survival impossible."[32] 'Financial Literacy' is a basic subject of public school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Online Financial Education program has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and top-notch (college students/general people) courses. It provides 1-6 customized contents for each level.[33] In order to become independent of the church, these contents must be evangelically established and trained and practiced as a trinity of missionaries, ministry officials, and saints. Money is also compared to the blood of our bodies. Just as the body is healthy when blood circulates well, money circulates well to strengthen the family economy of the saints and make donations and tithe sound. In order to design and change the lives of church independence and believers so that they can use it with healthy values about money, they should make them realize "financial illiteracy."

D. Pioneering the Last Terrestrial Church - “ And Then Shall the End Come”

1. MK 2021 Church Development Goal ’11,525’

Established in January 1996, EFC's "Mission Kampuchea 2021" (MK 2021) movement was launched in 2008 with the slogan "Let's pioneer churches in all 14,000 Cambodian villages by 2021." At that time, there were 1,841 churches, and 1,364 churches were pioneered by February 2023, the 15th anniversary. The cumulative number reaches 3,205 churches, with 11,525 remaining unexplored.34) The goal has been revised by 2025, but if calculated by substituting the number of churches pioneered so far, it will take 135 years to achieve the final goal, and the evangelization rate is

estimated to reach about 10.5%. It is urgent to share convergence mission strategies with all mission groups, including C&MA, EFC, and KMAC (Korean Missionary Society). Undeveloped areas in 25 states across the country can be viewed in detail on the Cambodian church site (cambodiachurches.org), and you can directly select areas where churches are needed and apply for pioneering. When the gospel enters 11,525 regions and churches are built, "And then shall the end come" (Matthew 24:14). New momentum is required for the MK 2021 movement.

2. Conversion In Poverty (Proselytising amid the Poverty)

1979 Thai border refugee camp. "In border camps, almost everyone was Christian." "In the border camps just about everybody was a Christian" There were 252,188 people in 18 U.N. refugee camps on the Thai border in 1984, and the majority were sent to Cambodia in early 1993. Arriving in their hometown, where nothing was left, "The breeders said they were joining missionaries to 'gift' the benefits of development, such as schools, food, wells and related projects promised by Christian groups. Even Cambodians called them "rice-bowl Christians".[35)]

“The Protestant missionaries estimated that 2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would be Christian, looking at the number of Cambodians in their churches.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 Cambodian census, only 0.9 percent of those surveyed said they were Christians. In other words, more than half of church members come to church on Sundays, but they do not actually confess to being Christian themselves. We need a mission to accept Christ with our heart and change our real life, and to live a life that follows Jesus Christ in our daily lives" (Kim Tae-jin 2013, 112).[36)]

2.8 million people, or 18% of Cambodia's total population, were poor in 2020, but an additional 460,000 people have been placed in poverty since the COVID-19 pandemic in 2021. Rural areas (22.8%) are more serious than Phnom Penh (4.2%) and urban areas (12.6%).37) The number of people seeking churches and missionaries will increase, and so will the "conversion in poverty," a rice bowl Christian, whose constitution prohibits providing money or materials to persuade people to convert. The Christian social mission and relief service must have been seen as such. Nevertheless, the essence of evangelism is "rescue and repentance." The gift must be changed from matter to the Holy Spirit. Repentance and baptism are given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cts 2:38).

3. Rural Change - No Young People

Of Cambodia's population of 17.1 million, the total labor force over the age of 15 is 9,345,426 (2021). Among them, 1.3 million are overseas workers in seven Asian countries, 1.2 million are workers in sewing industries, including the Phnom Penh Special Economic Zone (PPSEZ), and the remaining 630,000 are workers in the tourism industry. In this way, 3.1 million people left the village (more than this when calculating other industrial workers). Cambodia has 3.58 million households nationwide, of which 2.26 million are rural households (2019).[38] Considering this, 3.1 million (1,806,000 women) means that more than one young person from all rural households has left. Figures like these show that there are only children and adults left behind for farming in the countryside. Therefore, rural history and church develop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se population movements and changes.

4. Church Development In the Gateway City of 'Choice and Focus' - 'Phnom Penh 745'

The MK 2021 movement has 276 churches in Phnom Penh and is asking for an additional 745 churches. The city of 2.3 million continues to expand outwardly, while the Phnom Penh Special Economic Zone (PPSEZ) accounts for 75% of the young workforce, especially women. Korean missionaries also have 75% of their total resources concentrated in Phnom Penh and the metropolitan area. If you use this to pioneer the church and train your disciples by "choosing and focusing" as a targeted strategy, you can effectively increase the evangelization rate in the 1% range, and when the core class of marriage age is scattered to 14,514 hometown villages nationwide, they can spend their life with the gospel. Those who live in small villages in the factory area have a low loyalty to their workplaces, so they often move their factories, but if a contact point is developed considering this, a rich harvest with loyal workers is expected.[39]

5. Ubiquitous - The Advent of the Era of Palm Missionary Work

The average age of Cambodia's population in 2022 is 26.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gency (TRC),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17.6 million) and mobile phone subscribers (20 million) is higher than the total population (17.1 million), and the penetration rate of mobile phones is 139% of the total population. There are 9.78 million Facebook users, and those aged 18 to 34 are the key users. In the ubiquitous era, the palm of the hand soon became the end of the gospel. 97.7% (2022) of mobile phone users investigate the world in their palms and communicate information through social networking (SNS). One-dollar prepaid cards are sold the most for charging phone bills, and even though they are small, they are paid through mobile banking. It is a completely different generation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which was imprinted as the killing field of the

Khmer Rouge. Reaction to the gospel is also 'projecting and accepting their culture and way of understanding'.[40] Those wh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natives are more familiar with worship services in the palm of their hands than ground churches where they have to go a long way in hot weather. Evangelical platforms and contents of the smartphone generation are needed.

There are precedents such as 'Good News Asia' based on ICT, which conducts 24-hour evangelization to increase the 1% evangelization rate. (www.goodnews.asia) Currently, there are 1.3 million Cambodian workers (528,000 women) in seven Asian countries, and[41] Their means of communication is smartphones. It is produced as a responsive web optimized for mobile smartphones so that it can be easily accessed anywhere. Since March 2016, the server has been in Singapore, and the testimony of people whose lives have changed to the gospel i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Thailand, Laos, Cambodia, Tanzania, etc. has been handed down with photos. Over the past six years, the cumulative number of views of 94 contents has exceeded 460,000 (2016-2021). An average of 76,600 people visited a month, and they can pray for the reception according to the testimony and the emotion, followed by delivering the testimony they received through social networking (SNS). It is playing the role of a mobile missionary to increase the evangelization rate of 1% without a break even when everyone is asleep. All missionaries can share content with the platform.

A. Priority Implementation Task - “Who Will?”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Isaiah 6:8

1. A Study on the Law and Policy Strategy of the Kingdom of Cambodia

The Kingdom of Cambodia is a pluralist country that advocates liberal democracy, and it has preferential Islamic policies on Theravada Buddhism (95%) and Khmer nationalism. Even if mission bans have been issued several times, heresies have been free to work and in solidarity with government agencies in various shapes, they have only inferred the reason. This is because there w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such as religious law and labor law, and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mission sites based on national management strategy (square strategy).[42] Now, the first step toward the new 30 years of Cambodian missionary work begins with the reinterpreta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2. Co-Developement for Evangelism and Self-Church Missional Contents

Recently, the Cambodian government announced, "Cambodia in the Era of Industry 4.0." [43] To foster the necessary manpower, 1.5 million young people from poor and vulnerable families across the country will be provided with "job and skills" training free of charge (2023.1). Now, the government's department is planning and producing textbooks for education and training to achieve the same quality of results even if 1.5 million people are trained at a time difference. The same is true of content development in the gospel. Various points of contact should be developed, including an evangelist that can achieve the same results of salvation and repentance with the same concept of "Only Jesus." Items for self-church missionary work should also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hanging times and targets, and content should be produced.[44] There is a need for a ministry where professional talentors are gathered, jointly planned, produced, and supplied contents through the all missionary society.

3. Theological Seminary's 'Christian Economy'

"Give her something to eat" (Mark 5:43),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Luke 9:13), and "Feed my lambs" (John 21:15) are real problems faced by missionaries, but they are dark in the "real economy" because they have relied only on sponsorship. Even if it is not a crisis like the COVID-19 pandemic, the church disappears. The fighting food and military supplies of 339,822 troops of the 12th branch of the Kingdom of David (1 Chronicles 12:24-37) are handled by the Issachar tribe's "men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 200 chiefs, with all their relatives under their command" (1 Chronicles 12:32). 'A Good Soldier of Christ Jesus' is organized into those who serve as 'soldiers', those who 'compete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hardworking farmer' (Timothy 2:3-6), and the farmer who receives the grain first supplies the needs. Paul the Apostle was prepared as a manufacturing craftsman for more than 10 years in his hometown of Tarsus (Acts 9:30; Acts 11:25), so he was self-sufficient wherever he went (Acts 2:8), and he recommended that "the one who is unwilling to work shall not eat" (2 Thessalonians 3:10).

Dr. Ralph D. Winter once pointed to "The Mistake of Not Understanding Business in Mission and Mission in Business" as the fault of Western churches and missionary groups.[45] The independence of Cambodia's pioneering church a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verty"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cultivation of the ability of self-church mission (Acts 20:33-35) and the cultivation of Christian "economic leadership".[46] In addition, the meaning of the quote of Jewish Education: "He who does not teach his son business is like teaching his son to steal" should be able to be understood and practiced.

"Although it is a seminary, it is important not only to train pastors and theologians, but also to train believers who fulfill their cultural missions well if undergraduates do not have pastors and go out to the general society. In this case, the scholarship was given on the condition of becoming a pastor, so you should teach them to go out and work in society and pay back the scholarship" (Jeon Ho Jin 2013, 89).

4. Discharge of Ministry Workers and Female Pastor's Ordination

More than 1,000 local pastors have been produced through seminaries established since 1993. (180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23 years), 350 Cambodia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19 years), and 200 Phnom Penh Theological Seminary (CBI), Western Minster Theological Seminary, Life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Battambang Theological Seminar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Holy Theological Seminary are expected to reach 1,000.[47] Separately, about 30% of them are dropped out of the middle,[48] and research is also needed to rescue them and establish them as ministry officials.

In Cambodia, the proportion of women in church leaders reaches 33%[49], and in political terms, 10% of deputy prime ministers and ministers, 16% of senators, 21% of lawmakers, and 41% of civil servants are women (2021).[50] This shows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female leadership in Cambodian society, and It is a testament to the solidarity and unanimity of women who attract each other. Missionaries are outsiders of social networks that reflect the ethnic bonds of mission field, a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engage in limited ministry. Donald McGavran, who is called the father of the church growth movement because entering the social network is so important, he called the social network as" the bridges of God" (1955). It is important for female pastors to naturally participate in the social network of Cambodian maternal tradition, where properties of families and rights are inherited from women to women. Women who are educated in theology should be ordained as pastors and continue to be discharged. Cambodia "has a woman at the center of the gospel."

Ⅲ. Conclusion

1. Incapability of Keeping up With Social Transformation - The difference between 1% and 7%

Cambodia, which was imprinted as a killing field in the 1970s, has continued to grow in the 7% range for more than 20 years until 2019. According to the World Bank (WB), it recorded rapid growth enough to be called the "Olympian of Growth" (meaning incredibly spectacular economic growth). In

2020, the growth rate fell for a while (-3.1%)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but innovative plans began to follow. In 2021, the 2021-2035 Cambodian Digit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Framework was announced as a new driver of economic growth, and in 2022, In 2022, the BEEP (Basic Education Equivalence Program) system, which certifies 9th-grade courses through Internet education, was launched (co-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Labor). In January 2023, the "Cambodia in the Era of Industry 4.0" plan will be announced, and the necessary manpower will be paid allowances to 1.5 million youths from poor families and covered by free vocational training. The direction, strategy, goals and targets of the country are clear, and the pace of change is enormous.[51] In the meantime, some of the economic growth and social transformation may have had some impact on the changes in the lives of believers, church growth and financial independence, but The evangelization rate, which is insensitive to social change, remains in the 1% range.

2. Continuation of the Expensive Missionary Work

"Missionaries weigh the yoke on the people of the mission site by introducing the gospel wrapped in the way they practice in their home church (Unnecessary York). Unfortunately, these church structures, introduced from most rich countries, are expensive and not necessarily biblical"(Jean Johnson, 2012).[52] Children's worship without rural worship leaders and open worship forms for women in their 20s in the city should be studied, as well as the design of chapel53), such as Shittim Tree Sculpture and the Covenant Ark of Pure Gold (Excerpt 25:10-22), which visually differentiates religious characteristics like Buddhist temples and mosques.

3. Suggestions

1) Add Strategy into Strategy.

'Surely you need guidance to wage war, and victory is won through many advisers.' (Proverbs 24:6)

What is strategy? "The process of determining how you will serve to achieve your mission"(Aubrea Malphurs 2005,167).

"God is the best strategist. The history of saving the world is only his job. But he wants to do it with us. He wants us to develop and carry out a plan in his own will" (Basil Clutterbuck 1957, 30).

Paradoxically, "God is omnipotent, but he makes history through our plans.

Niche can be seen throughout the low evangelization rate of around 1%. Taking advantage of the crisis as an opportuni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next 30 years as a "strategy," facing the reality of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n missionary work and 1% evangelization.

“Your Strategy Needs a Strategy”[54)]

“Your Strategy Plus a Strategy”

2) Establishment of “Uri” System of Collective Intelligence

If a sense of crisis in the 1% range and a consensus to focus on "1%" are formed, the answer to the problem can be found in the "Wikipedia" method. When Wikipedia, a huge warehouse of "knowledge production and sharing," first started, there were only 31 searchable words (2001). Currently, more than 800 missionaries have been active in the 30-year history of Korean missionary work. There is a need for "collective intelligence" that can unite each other's knowledge. Paul, the apostle who seemed to do everything by himself, also served as "us."[55)] Dr. Ralph D. Winter said, "The biggest mistake in missionary history was that an indigenous church was built, but the 'indigenous church for missionary work' was not established." It forms the Holistic Approach through creativity and collective intelligence through collaboration, not alone. As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is, it could be proposed to establish a "strategic committee" in the Korean Missionary Society to found a "Uri" system to secure basic datas on the role of think tanks. A "general situation room for missionary work" is urgently needed.

3) Development of Evangelization Rate Measurement Index in Cambodia

Currently, the evangelization rate is calculated by calculating the number of church developments and the number of saints in proportion to the total number of people. When the above-ground church disappears, the "rescued saints" disappear from the tally, so the evangelization rate will inevitably decrease further in proportion to the growing number of people every year. Prime Minister Hun Sen celebrated Ramadan Day in Islam on April 1, 2022, saying, "Buddhists are 95%, Muslims are 2%, and Christians are 0.25%."[56)] Uncertain data are misjudged by missionaries' strategies and missionary organizations, which negatively affect the perception of Cambodian religious ministry and national leadership.

An improved evangelization rate measurement index is also needed for the continuity of the MK 2021 movement, which has been underway for 15 years. The World Bank's $2.15 World Bank-International Poverty Line calculation method, Transparency International's national corruption index measurement method, and Georgetown University's Ray Line's "Formula for Measuring National Power Rate" can be referenced.[57)]

4. End Note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In 1996, Hillary Diane Rodham Clinton's book "It Takes a Village" was published.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in the book's title and preface, which preaches the importance of children's education and family. Although she was the wife of the U.S. president at that time and was assisted by top experts as the first lady of the White House, Hillary expressed her mother's experiences and hardships of raising her only daughter in a compressed way using an African proverb.

In order to raise the evangelization rate of Cambodia's "weak 1% like a newborn in need," Just as raising a child requires the wisdom of the whole village, raising the evangelization rate of the 1% requires a "word" from all Korean missionaries, and even if it goes slowly, they must go together.[58)]

I look forward to and ask for the subsequent discussions and follow-up studies of fellow missionaries on the analysis and proposals that I attempted first.

List of References

Kim Jo Dong et al., Cambodian Missionary History, Mission Research Division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Cambodian Korean Missionary Society, Book Publishing Spire, 2013, p.182, p.153, p.155

Kim Jong Sik, Cambodia also has a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unpublished data, 2019

Kim Jong Sik, Self-reliance Mission "Niche" Strategy Sharing Seminar, Phnom Penh Sunlin Church, 2022, p.7-p13

Kim Chang Hoon,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Leadership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mbodia, (PH.D., Fuller Graduate School of Missionary Korea, 2014), p.12-p.13

Seo Byeong Do, Mission White Paper, Cambodian Presbyterian Church (CPCC), 2013, p.89

Lee Seung Yeon*Kang Seung Sam, Cambodian Protestant 90th Anniversary Mission Forum, Salt & Light Publisher, 2013, p.10-p.14

Lee Jeung Jae, 2020 Korean Missionary Society Cradle in Cambodia, KMAC, 2022, p.31-p.143

Ahn Hee Yeol, Evaluation and Strategic Proposal of the Church Development Movement (CPM) in Cambodia, Mission Magazine, 2011, p. 12

Jang Se Hoon, 'Continuation and Transformation of Urban Poverty at the Current Stage' Criticism Society, Economic and Social Control No. 66, 2005, p.95-p.125

Jang Wan Ik, Church Independence in Indo-China Region, Indo-China Korean Missionary Conference Theological Division, 2011, p.271-p273.

Jang Wan Ik, Indo-China Study - Sustainable Missionary Station and Mekdo Department White Paper in the Mekdo Region, No. 4, GMS, 2020, p.90-p.

Jang Wan Ik, A Study on the Self-reliance Policy of the Protestant Church in Cambodia, ICCHI Cambodian Church History Institute, 2022, p.28

Jeon Seok Jae, Direction and Strategy for Future Generation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2015, p.127

Pyo Myeong Dae, Status and Diagnosis of Cambodian Theological Education and Future Tasks, 30th Anniversary Forum for Korean Missionary Service, Phnom Penh, Mokyang Church, 2022, p.3.

J. Mark Terry et al., "General Discussion on Missionary Strategies for Churches and Missionaries" translated by Eom Ju Yeon, World Christian Documentary Mission, 2015, p.32-p.33

Ken Eldred, spiritual capital, https://www.missionfrontiers.org/pdfs/33-4-spiritual-capital.pdf,

Sherwood G. Lingenfelter, Transforming Culture, 2nd ed, (Grand Rapids : Baker, 1998), 1.

Prohibition of Conversion Rights 1932, http://www.cambodianchristian.com/article/?p=273

Christian Daily: Prohibition of Christian missionary work in Cambodia, July 17, 2007

Good News Asia www.goodnews.asia

Steve Hyde, an individual interview with 168 Cambodian church leaders, 'Portrait of the Body of Christ inCambodia', Asia for Jesus, 2011

Asian Journalists Association, Cambodia, Total Ban on Christian Missionary Act, 17 July 2007

Onnuri Church, 5th Stage Strategy of Custom Evangelical Rally, Evangelical School, 2006

Guidelines for Restriction of Monks Participating in Political Protests, Ministry of Religion (MC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US State Department;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gency) 2021

7th Workshop for Inter-Religious Dialogue, Phnom Penh, December 06, 2018 https://www.information.gov.kh/articles/7411

Cambodian statistics https://ko.zhujiworld.com/kh/, (search date: February 7, 2023)

Cambodian Household Count Statistics https://ko.zhujiworld.com/kh/

Cambodian Evangelical Federation (EFC), Cambodian Churches Presentation, MK 2021, (2012)

Cambodian National Council for Women's 2020 report

Korea Missionary Research Institute (kriM), Cambodian Protestant 90th Anniversary Mission Forum, 2013, Stage 865.

2021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US State Department;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gency) 2021, 12. https://www.il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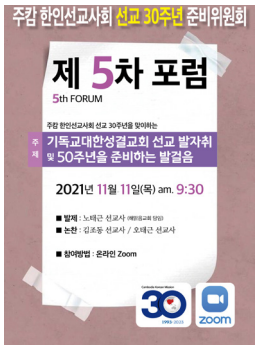
MK 2021 Cambodian church site cambodiachurche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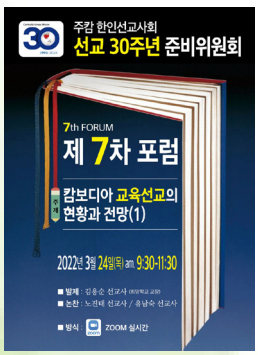
Ralph D. Winter, “To the New ASM : Greetings from the West”, Asian Society of Missiology, Bangkok Forum,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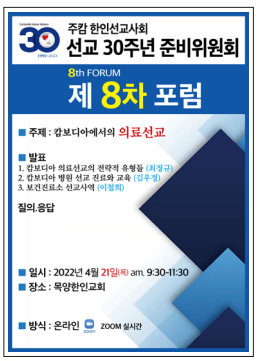
한인선교 30주년 포럼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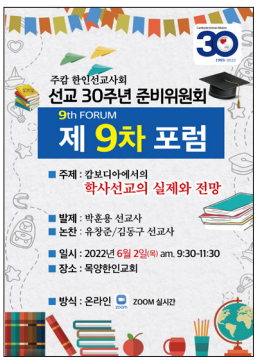
2021~2023년 동안
온라인(줌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10차까지 포럼 자료를 모아
편집을 하였습니다.

PDF파일로 우선 배포 후
곧 전자책으로 발행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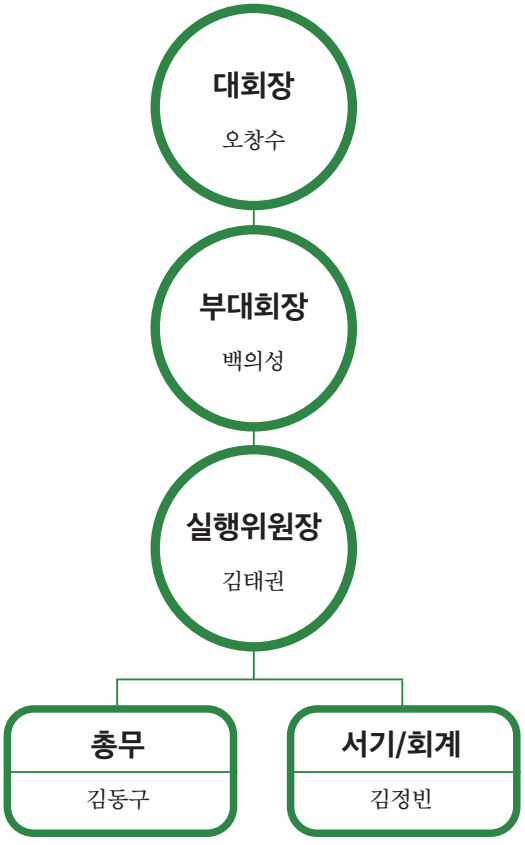




Cambodia Korean Mission

1993-2023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 조직도



디자인/편집 : DesignM Design Mission for Cambodia 디자인미션 / 정영신 선교사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한인선교 30주년 선교대회**